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 윤혜령 편집

02

북한

최고 지도자 발언
주요 정부 성명
주요 기관 성명
주요 담화
기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윤혜령 편집

02

북한

최고 지도자 발언
주요 정부 성명
주요 기관 성명
주요 담화
기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2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박주화, 윤혜령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 978-89-8479-922-6 94340
978-89-8479-920-2 (전4권)
가 격 13,500원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평화정착이 비핵화의 속도를 재촉하고,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의 동력이다. 2018년 평창이 평화의 기회를 제공했고, 남북, 북미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가 왔다. 물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산맥을 넘어야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의 기차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주요 합의, 남북관계의 분야별 주요합의, 그리고 북한의 과거 제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참여자 모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합의를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의 주요합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환경이고,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필요하다. 알고 보면 과거의 비핵화 협상도 포괄적 협상 형식이었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이었고, 여기서 안전보장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약속과 이행 사이의 간극을 주목해야 하지만,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적대국가 사이의 관계 개선 과정이나 ‘풀기 어려운 분쟁’의 평화협정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을 이행해서 평화를 정착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분쟁의 성격이 다르지만, 합의문은 주고받은 타협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나 해외사례에서 합의문은 문서가 작성되는 당시의 관계를 반영한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의제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합의이후 이행을 통해 합의문은 점점 더 구체화된다. 이 자료집이 합의문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를 향해 걷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통일연구원 원장

김연철

I. 최고 지도자 발언	1
1. 김일성 신년사 [1991.01.01.]	3
2. 김정은 신년사 [2018.01.01.]	20
3. 조중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2018.03.28.]	58
4. 조중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연설 [2018.03.28.]	65
5. 판문점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동발표문 [2018.04.27.]	72
II. 주요 정부 성명	75
1. 조선 정부 성명 [2014.07.07.]	77
2. 조선 정부 성명 [2015.06.15.]	87
3. 조선 정부 성명 [2016.07.06.]	98
4. 조선 정부 성명 [2017.08.07.]	108
5. 조선정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한 성명 발표 [2017.11.29.]	117
III. 주요 기관 성명	121
1. 조선 외교부 성명 [1994.04.28.]	123
2. 조선 외무성 성명: 정전협정 당사국에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2010.01.11.]	127
3. 조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2013.10.12.]	129
4. 조선 외무성 성명 [2015.10.17.]	143
5. 조선 핵무기연구소 성명 발표 [2018. 05.24.]	150
IV. 주요 담화	155
1. 조선 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5.02.25.]	157

목 차

2. 조선 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대미 잠정협정 제의 [1996.02.22.]	160
3. 조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 [1996.04.04.]	164
4.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 체결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2002.10.25.]	166
5.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5.07.22.]	170
6. 조선 외무성 담화 [2015.10.07.]	17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동지의 담화 [2018.05.16.]	177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최선희 부상 담화 [2018.05.24.]	184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부상 담화 발표 [2018.05.25.] ...	188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담화 [2018.07.07.]	194
V. 기타	205
1.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1988]	207
2. UN 특별위원회 회의의 북측 대표 연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4.03.30.]	233
3. 조선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전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2018.01.14.]	236



4.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결정서(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병진로선) [2013.03.31.]	248
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 [2018.04.20.]	255
6. 북남 노동자 단체 공동성명: 북남 노동자의 단결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18.06.15.]	280
7.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 [2018.06.15.]	286
8. 종전선언채택은 평화보장의 첫 공정이다(조선중앙통신사 논평) [2018.07.24.]	294
9. 종전선언발표가 선차적공정이다(노동신문 개인논평) [2018.08.09.]	300



I

최고 지도자 발언

1. 김일성 신년사 [1991.01.01.]

조선어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나는 희망찬 새해 1991년을 맞으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뿔럭 불가담 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90년은 우리 인민이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한 긍지 높은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라가 분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 앞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 공세로써 반혁명적 공세를 맞받아 나갔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대진군 온 동으로 힘 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온갖 장애와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군 군인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확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리원 카리비로 련합 기업소를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이 힘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가까운 기간에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성의 전투에 떨쳐나선 수도 건설자들은 통일거리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지난 한 해 동안에 3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촌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에 떨쳐 나선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은 짧은 기간에 2천리의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대동강과 례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련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습니다. 2천리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과학과 교육, 문화 예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 발전과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였습니다.

오늘의 엄혹한 정세 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제국주의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으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는 힘 있는 고무로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위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때에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경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 단결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 있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함께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1990년대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 인민군 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 우리 앞에는 현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와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의 만세 소리가 계속 높이 올릴 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인민 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 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건설을 집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사리원 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과 10월 9일 강철종합공장 건설, 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중요 대상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인민 군군인들은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당 앞에 결의한 건설목표를 어김없이 실현함으로써 당과 인민들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생활을 끊임 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생활 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가장 값 높고 보람 있는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며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화학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며 농업 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보장하며 경공업 공장들에 화학섬유와 여러 가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평양시에 통일거리 건설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돛이 되는 해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 관리에서 균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 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본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옳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 일군들과 행정경제 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 관리에서 특히 행정경제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계획규률, 로동 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 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올해에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 온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 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 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전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민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영웅적 인민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온 혁명적 인민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 한번 떨쳐야 하겠습니까.

지난해는 온 민족이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 길에 떨쳐나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 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역사적인 8.15범민족대회가 열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인 것은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습니다. 대결과 분렬의 얼음장을 녹이며 뜨겁게 분출된 이러한 민족적 단합의 기운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여온 반공대결정책이 파산되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 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 력량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을 더욱 확신성 있게 내다보면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열을 반세기이상 끌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 해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 전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리념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터진다면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과 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침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 있는 노력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으며 도리어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남고위급회담 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평화>요, <평전종식>이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평화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류우선론>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래왕이나 교류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보다 긴절한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 데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북남 사이에 고향방문이나 경제교류를 실현하자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침>에 대한 의구심부터 풀어야 합니다. 전쟁이 현실적 위협으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 채택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이 취한 입장은 그들에게 평화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북과 남 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출발점으로 됩니다.

불가침선언은 남조선당국자들 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한 문제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반대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신뢰조성우선>이라는 새로운 전체조선을 들고 나와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도저히 리해 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당 국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 것은 불가침선언 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 조성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남조선당국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도 전에 그것을 휴지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이 우리와 합의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도대체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침을 외워온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남침위협>이라는 것도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을 뿐입니다.

남조선당국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 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조국통일방도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의 첫 실마리도 풀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이면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북과 남은 하루빨리 조국통일방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질화>되어 있는 북과 남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 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인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난 40여 년 동안 존재하여 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인데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 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 것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 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 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동질성>회복이라는 구실 밑에 제도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두 개 국가로 갈라져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어느 측에서도 접수될 수 없는 것이며 접수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 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회담에는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 것은 그들의 사대 근성과 분렬주의적 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 때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 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입니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도로서 이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민주련방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 중앙정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 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련방제 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전에라도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통일 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될 수 없는 <승공통일>을 꿈꾸거나 <적화통일>의 유령으로 인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승공>과 <적화>도 북침과 <남침>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 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협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 민족 위업입니다. <두개 조선>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재야를 가리지 말고 다수와 소수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견의 차이와 과거의 허물도 묻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각 당, 각 파의 정치 세력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련대련합하여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두터이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 사이에도 대화가 진행되고 각 계층의 민간인들도 서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하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답을 쌓고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 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며 그 누구에게나 통일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당국 사이의 회담이 결코 북남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될 수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고위급회담도 진척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민간인들 사이의 대화마저 가로막는 것과 같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을 적대시하는 <법>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여 체포 투옥한 각계 인사들을 지체 없이 석방하고 모든 남조선 인민들에게 북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온갖 분렬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올해를 완화와 평화의 해, 화해와 단합의 해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정세의 변화 과정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반제자주적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자주 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 길로 되돌려 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 권한에 넣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정치체제와 경제제도를 고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제국주의라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계속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 나라들과 뿔려 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재능 있는 아세아 인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간다면 아세아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좌절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칙입니다. 전진 도상에 부닥친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역사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진리와 원칙을 고수하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것과 낡은 것, 진보와 반동 사이의 복잡한 투쟁과 혼란된 정세 속에서 21세기로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2. 김정은 신년사

Kim Jung Un's New Year Address [2018.01.01.]

조선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18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신년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 !

동포형제 여러분 !

오늘 우리 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로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 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 속에 감회 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 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강의한 인민의 진정 어린 모습에서 큰 힘과 지혜를 얻으며 조국 번영의 진군 길을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류레 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 속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결사 옹위 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 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 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그 리행을 위한 여러 차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 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량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우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 드리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 쥐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 장거입니다.

나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 있게 떠밀어준 영웅적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온 한 해 헌신·분투한 우리 국방 과학자들과 군수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 열법 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전략의 화학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 있게 벌려 인민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새 형의 트랙트르와 화물 자동차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더욱 힘 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다수확 농장과 작업반 대렬을 늘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웅장화려한 려명 거리와 대규모의 세포 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 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만리마 속도 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 속에서 새로운 전형단위들이 련이어

태어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었습니다.

지난해에 과학문화 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 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환경이 보다 일신되었으며 의료 봉사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혁명적 량만과 전투적 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 공연 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 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의 사변적인 나날들에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 뜻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 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 뜻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 구호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 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 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자립적 동력 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 자원 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 발전소들에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 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가적인 교차생산조직을 짜고 들며 전력량비 현상과의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 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에 필요한 전력, 철정광, 무연탄, 갈탄, 화차와 기관차,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 다음해 철강재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금속 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촉매 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 소다 생산 공정을 개건완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금성트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계 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가 은을 낼 수 있게 석탄과 광물 생산, 철도 수송에서 련대적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 운수 부문에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 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 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열차의 무사고 정시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 공장들의 설비와 생산 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배무이와 배 수리 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와 단천 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산림복구 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 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 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 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 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 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 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 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 기관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 안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시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의료봉사 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며 만리마 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짖어 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일흔 둘이 되는 올해에 인민군대는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전투훈련을 실전환경에 접근시켜 강도 높이

조직진행하여 모든 군중, 병중, 전문병 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 적대 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 훈련을 힘 있게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 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 연구부문과 로켓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 반격 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상적 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우리 앞에 나선 투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 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당 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 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 빼는 데 모를 박고 혁명적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히 벌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관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사상 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모두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 몸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 속 고충과 생활상 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 대진군에서 영웅적조 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 속도 창조 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 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 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레없이 악화되고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에 의하여 파쇼 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일흔 뜻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 격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 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지들 !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 참화를 들썩우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결단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동지들 !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 것입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 것입니다.

모두 다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Dear fellow countrymen and brave service personnel of the People's Army,

Dear compatriots,

Today, recollecting with great pleasure and pride and deep emotion the proud achievements we performed last year through our diligent and worthwhile labour and sincere efforts and by the sweat of our brow, we are all seeing in the new year 2018 with fresh hopes and expectations.

Greeting the hope-filled new year, I wish the families across the country good health, happiness, success and prosperity. I also wish that the beautiful dreams of all our people, including the hopes of our children in the new year, would come true.

Comrades,

As I look back upon last year, when I worked strenuously on the road of achieving national prosperity, gaining great strength and wisdom from the pure minds of the dauntless people who invariably trusted and followed the Party even in the face of manifold difficulties and trials, I feel my heart swelling with the pride in waging the revolution shoulder to shoulder with a great people.

On behalf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 extend sincere thanks and New Year greetings to all the people and service personnel who won

miraculous victories to be noteworthy in the national history of 5 000 years by sharing mind and purpose with the Party and supporting its determination on the road of arduous yet glorious struggle.

My New Year greetings go also to the compatriots in the south and abroad who are fighting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nd to the progressive peoples and other friends across the world who opposed war of aggression and gave firm solidarity to our cause of justice.

Comrades,

The year 2017 was a year of heroic struggle and great victory, a year when we set up an indestructible milestone in the history of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with the spirit of self-reliance and self-development as the dynamic force.

Last year the move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vassal forces to isolate and stifle our country went to extremes, and our revolution faced the harshest-ever challenges. In the face of the prevailing situation and the worst trials on the road of advance, our Party trusted the people and the people defended the Party death-defyingly, turning adversity and misfortune to good account and achieving brilliant successes on all the fronts where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is being built.

Through last year's grandiose struggle we powerfully demonstrated at home and abroad our immutable faith and will to follow to the end the road of Juche-oriented socialism opened up by the great Comrade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the single-hearted unity of socialist Korea in which all the people are firmly united behind the Party.

An outstanding success our Party, state and people won last year was the accomplishment of the great, historic cause of perfecting the national nuclear forces.

On this platform one year ago I officially made public on behalf of the Party and government that we had entered the final stage of preparation for the test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 the past one year we conducted several rounds of its test launch, aimed at implementing the programme, safely and transparently, thus proving before the eyes of the world its definite success.

By also conducting tests of various means of nuclear delivery and super-intense thermonuclear weapon, we attained our general orientation and strategic goal with success, and our Republic has at last come to possess a powerful and reliable war deterrent, which no force and nothing can reverse.

Our country's nuclear forces are capable of thwarting and countering any nuclear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y constitute a powerful deterrent that prevents it from starting an adventurous war.

In no way would the United States dare to ignite a war against me and our country.

The whole of its mainland is within the range of our nuclear strike and the nuclear button is on my office desk all the time;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clearly aware that this is not merely a threat but a reality.

We have realized the wish of the great leaders who devoted their lives to building the strongest national defence capability for reliably

safeguarding our country's sovereignty, and we have created a mighty sword for defending peace, as desired by all our people who had to tighten their belts for long years. This great victory eloquently proves the validity and vitality of the Party's line of simultaneously conducting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up our nuclear forces and its idea of prioritizing science, and it is a great historic achievement that has opened up bright prospects for the building of a prosperous country and inspired our service personnel and people with confidence in sure victory.

I offer my noble respects to the heroic Korean people who, despite the difficult living conditions caused by life-threatening sanctions and blockade, have firmly trusted, absolutely supported and dynamically implemented our Party's line of simultaneously promoting the two fronts.

My warm, comradely greetings go also to our defence scientists and workers in the munitions industry who made devoted efforts all the year round,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at the plans and decision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re a science and a truth and that they automatically mean their materialization.

Last year we also made notable headway in carrying out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of our vigorous endeavour to establish the Juche orientation in the metallurgical industry, an oxygen-blast furnace of our own style was built at the Kim Chaek Iron and Steel Complex to maintain regular production of pig iron by relying on anthracite, and

prospects were opened up for consolidating the independent foundations of the chemical industry and attaining the five-year strategy's goal for the output of chemical products.

Numerous light-industry factories in such sectors as textile, footwear, knitwear and foodstuff industries raised high the banner of Juche orientation and made proactive efforts to propel the modernization of several production lines by means of our own technology and our own equipment. By doing so, they provided a guarantee for making the range of consumer goods varied and improving their quality.

The machine-building industry, by upholding the banner of self-reliance and rely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creditably attained the Party's goal for the production of new-type tractors and trucks, and thus laid solid foundations for speeding up the Juche orient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comprehensive mechanization of the rural economy. The agricultural sector, by actively introducing scientific farming methods, increased the ranks of high-yield farms and workteams and reaped an unusually rich fruit harvest in spite of unfavourable climatic conditions.

Our service personnel and people built magnificent Ryomyong Street and the large-scale livestock farming base in the Sepho area, and completed the task for the first stage of the forest restoration campaign, thereby demonstrating the might of great army-people unity and the potential of the socialist independent economy.

Amid a vigorous struggle for the creation of the Mallima speed, new model units emerged one after another, and a large number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fulfilled their quotas of the yearly national economic plan ahead of schedule and made a proud achievement of surpassing their peak-year levels.

Successes were also made o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ronts last year.

Scientists and technicians resolv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blems arising in the building of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and completed research projects in the cutting-edge field, thereby giving stimulu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ing standards. The socialist education system was further improved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upgraded, while medical service conditions were bettered. An example of artistic performance activities was created to infuse the whole country with revolutionary optimism and the militant spirit, and our sportspeople won victories in different international competitions.

All the successes made last year are the triumph of the Juche-oriented revolutionary lin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a precious fruition of the heroic struggle of the service personnel and people who are firmly rallied behind the Party.

Our Party and people achieved such signal victories others could never think of achieving by their own efforts in the face of the sanctions-and-blockade moves the United States and its vassal forces perpetrated more viciously than ever before to stamp out the rights to sovereignty,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DPRK. Herein lies the source of their dignity and their great pride and self-confidence.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 thanks once again to all the people and service personnel who victoriously advanced the cause of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always sharing the destiny with the Party and braving all difficulties and trials on the eventful days of last year.

Comrades,

This year we will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gloriou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ir state with splendour is of real significance for the great people, who have raised with dignity the status of their socialist country, the greatest patriotic legacy of the great Comrade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to that of a strategic state recognized by the world.

We should make constant innovations and continued progress until we win the final victory of the revolution by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heroic struggle and collective innovation which adorned the founding and course of development of Juche Korea. A revolutionary general offensive should be launched to achieve fresh victory on all fronts of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by taking the historic victory in the building of the DPRK's nuclear forces as a springboard for fresh progress.

"Let us launch a revolutionary general offensive to achieve fresh victory on all fronts of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country!"—this is the revolutionary slogan we should uphold. All officials, Party members and other working people should launch an all-people

general offensive to frustrate the challenges of the hostile forces who are making last-ditch efforts and raise the overall strength of our Republic to a new stage of development as they brought about a great upsurge in socialist construction overcoming all difficulties through the great Chollima upswing after the war.

A breakthrough should be made in reenergizing the overall economic front this year, the third year of implementing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entral task facing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this year i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Juche characte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 the people's standard of living as required by the revolutionary counterstrategy put forward by the Second Plenary Meeting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We should concentrate all efforts on consolidating the independence and Juche character of the national economy.

The electric-power industry should maintain and reinforce the self-supporting power generation bases, and direct a great deal of efforts to developing new power sources. A dynamic campaign should be conducted to drastically increase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lower the loss of electric power and increase its production as much as possible by maintaining and reinforcing imperfect generating facilities. Provinces should build power generation bases to suit their local features and put power generation at the existing medium and small-sized power stations on a normal footing to satisfy the needs of electric power for local industry by

themselves. Alternated production should be organized scrupulous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a vigorous struggle waged against the practices of wasting electric power to make effective use of generated electric power.

The metallurgical industry should further improve the Juche-oriented iron- and steel-making technologies, increase the iron production capacity and drastically raise the quality of metallic materials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the national economy for iron and steel. It is necessary to ensure a preferential, planned and timely supply of electricity, concentrated iron ore, anthracite, lignite, freight wagons, locomotives and funds for the metallurgical industry. By doing so, we can fulfil next year's iron and steel production plans and make the industry Juche-oriented without fail.

The chemical industry should step up the establishment of the C1 chemical industry, push the projects for catalyst production base and phosphatic fertilizer factory as scheduled, and renovate and perfect the sodium carbonate production line whose starting material is glauberite.

The machine-building industry should modernize the Kumsong Tractor Factory, Sungni Motor Complex and other factories to develop and produce world-level machinery in our style.

The coal and mineral production and rail transport sector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make the country's self-reliant economic foundations prove their effectiveness.

Notably, the rail transport sector should make the best use of the existing transport capacity by making transport organization and control more scientific and rational, and maintain discipline and order in the railways as rigid as in the army, so as to ensure an accident-free, on-schedule rail traffic.

A turn should be brought about this year in improving the people's standard of living.

Light-industry factories need to transform their equipment and production lines into labour- and electricity-saving ones and produce and supply more diversified and quality consumer goods with domestic raw and other materials, and provinces, cities and counties should develop the local economy in a characteristic way by relying on their own raw material resources.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fronts should effect an upswing. We should introduce seeds of superior strains, high-yield farming methods and high-performance farm machines on an extensive scale, do farming scientifically and technologically so as to fulfil the cereals production plan without fail, and boost the p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s, fruits, greenhouse vegetables and mushrooms. We should enhance our ship building and repair capacities, launch scientific fishing campaigns, and reenergize aquatic farming.

This year the service personnel and people should join effort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push ahead with major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the renovation of Samjiyon County, the

construction of the Tanchon Power Station and the second-stage waterway project of South Hwanghae Province, and channel steady efforts into the construction of houses.

Building on the success we achieved in the forest restoration campaign, we should properly protect and manage the forests that have already been created, improve the technical conditions of roads, conduct river improvement on a regular basis, and protect environment in a scientific and responsible manner.

Every sector and every unit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enlist their own technical forces and economic potential to the maximum and launch a dynamic struggle to increase production and practise economy, so as to create a greater amount of material wealth.

A shortcut to developing the self-sufficient economy is to give precedence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ke innovations in economic planning and guidance.

The scientific research sector should solve on a preferential basis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blems arising in establishing Juche-oriented production lines of our own style, ensuring domestic production of raw and other materials and equipment, and perfecting the structure of the self-supporting economy. Every sector and every unit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make a contribution to achieving production growth by intensifying the dissem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waging a brisk technological innovation drive.

The Cabinet and other economic guidance organs should work out a

realistic operational plan to carry out the national economic plan for this year and push forward the work for its implementation responsibly and persistently. Posi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state to ensure that the socialist system of responsible business operation proves its worth in factories, enterprise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Socialist culture should be developed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anks of teachers, improv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as demanded by the trend of developing modern education, apply the people-oriented character in public health service in a thoroughgoing way, and boost the production of med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and different kinds of medicines.

We should conduct mass-based sporting activities briskly, create sporting techniques and tactics of our own style, and produce artistic and literary masterpieces which truthfully depict the heroic struggle and life of our service personnel and people in the Mallima era and the beautiful and sublime features proper to human beings. In this way, we can crush the bourgeois reactionary culture by dint of our revolutionary socialist art and literature.

A vigorous struggle should be waged to tighten moral discipline throughout society, establish a socialist way of life and eliminate all kinds of non-socialist practices, so as to ensure that all the people, possessed of ennobling mental and moral traits, lead a revolutionary and cultured life.

The self-reliant defence capability should be further consolidated.

In this year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s Revolutionary Army into a regular revolutionary armed force by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the People's Army should perfect its features as befits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the Party. It should organize and conduct combat training in a highly intensive way, in a real-war atmosphere, to develop all its units in different arms, services and corps into the ranks of a-match-for-a-hundred combatants.

The Korean People's Internal Security Forces should sharpen the edge of the sword of the class struggle and detect and frustrate the schemes by undesirable and hostile elements in time. The Worker-Peasant Red Guards and Young Red Guards should enhance their combat capability in all aspects through intensive combat and political training.

By consistently holding fast to the line of simultaneously promoting the two fronts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policy set by the Party at the Eighth Conference of Munitions Industry, the defence industry should develop and manufacture powerful strategic weapons and military hardware of our style, perfect its Juche-oriented production structure and modernize its production lines on the basis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The nuclear weapons research sector and the rocket industry should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the power and reliability of which have already been proved to the full, to give a

spur to the efforts for deploying them for action.

And we should always be ready for immediate nuclear counterattack to cope with the enemy's manoeuvres for a nuclear war.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might is the first and foremost strength of our state and the great propellant for opening up an avenue for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fighting tasks facing us, we should rally the whole Party more firmly on its organizational and ideological basis and establish a thoroughgoing revolutionary climate within the Party. In this way, we can constantly enhance its fighting efficiency and leadership role in the overall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ll Party organizations should never tolerate all shades of heterogeneous ideas and double standards of discipline that run counter to the Party's ideology, but strengthen the single-hearted unity of the whole Party centred on its Central Committee in every way possible.

The whole Party should launch an intense struggle to establish a revolutionary climate within the Party with the main emphasis put on rooting out the abuse of Party authority, bureaucratism and other outdated methods and style of work, so as to ensure that the ties of ki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asses of the people are as solid as a rock.

Party organizations should intensify Party guidance to ensure that the

work of their respective sectors and units is always conducted in conformity with the ideas and intentions of the Party and the requirements of its policies, and find satisfactory solutions to the problems arising in the building of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by giving definite precedence to political work and motivating the people ideologically.

We should rally all the service personnel and people firmly behind the Party ideologically and volitionally so that they throw in their lot with it whatever the adversity and fight with devotion for the victory of the socialist cause.

Party and working people'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organs should orient and subordinate all their undertakings to strengthening the single-hearted unity. The benchmark in planning and launching their work should be the people's demands and interests. And they should go deep among the people, sharing good times and bad with them and solving their mental agony and difficulties in their lives. They should ensure that the shorter the supply of everything is, the fuller play is given to the beautiful traits of comrades and neighbours helping and caring for one another with all sincerity.

We should give free rein to the indomitable mental strength of the heroic Korean people on the present grand Mallima march.

Party and working people's organizations should ensure that all the working people cherish patriotism in their hearts and bring about collective innovations one after another in the great campaign to create the Mallima speed with the revolutionary spirit of self-relia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s the dynamic force. They should see to it that officials, Party members and other working people carry forward the fighting spirit displayed by the elder generations who brought about epochal changes on the grand Chollima march and all of them become Mallima pioneers who vigorously rush forward in the vanguard of the era.

Comrades,

Last year, too, our people made strenuous efforts to defend the peace of the country and hasten national reunification in keeping with the aspirations and demands of the nation. However, owing to the vicious sanctions and pressure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vassal forces and their desperate manoeuvres to ignite a war, all aimed at checking the reinforcement of the self-defensive nuclear deterrent by our Republic,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ggravated as never before, and greater difficulties and obstacles were put on the road of the country's reunification.

Even though the conservative "regime" in south Korea, which had resorted to fascist rule and confrontation with fellow countrymen, collapsed and the ruling circles were replaced by another thanks to the massive resistance by the enraged people of all walks of life, nothing has been changed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the contrar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id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it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against the aspirations of all the fellow countrymen for national reunification, drove the situation to a tight corner, further aggravated the m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brought the

bilateral relations to a fix that can be hardly resolved. We can never escape the holocaust of a nuclear war forced by the outside forces, let alone achieve national reunification, unless we put an end to this abnormal situation.

The prevailing situation demands that now the north and the south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mselves and take decisive measures for achieving a breakthrough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without being obsessed by bygone days. No one can present an honourable appearance in front of the nation if he or she ignores the urgent demands of the times.

This year is significant both for the north and the south as in the north the people will greet the 70th founding anniversary of their Republic as a great, auspicious event and in the south the Winter Olympic Games will take place. In order to not only celebrate these great national events in a splendid manner but also demonstrate the dignity and spirit of the nation at home and abroad, we should improve the frozen inter-Korean relations and glorify this meaningful year as an eventful one noteworthy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First of all, we should work together to ease the acut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this unstable situation, which is neither wartime nor peacetime, persists, the north and the south cannot ensure the success of the scheduled events, nor can they sit face to face to have a sincere discussion over the issue of improving bilateral relations, nor will

they advance straight ahead towards the goal of national reunification.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desist from doing anything that might aggravate the situation, and they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defuse military tension and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respond positively to our sincere efforts for a detente, instead of inducing the exacerbation of the situation by joining the United States in its reckless moves for a north-targeted nuclear war that threatens the destiny of the entire nation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on this land. They should discontinue all the nuclear war drills they stage with outside forces, as these drills will engulf this land in flames and lead to bloodshed on our sacred territory. They should also refrain from any acts of bringing in nuclear armaments and aggressive forces from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is wielding the nuclear stick and going wild for another war, it will not dare to invade us because we currently have a powerful nuclear deterrent. And wh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 determined, they can surely prevent the outbreak of war and eas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climate favourable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a pressing matter of concern not only to the authorities but to all other Koreans, and it is a

crucial task to be carried out through a concerted effort by the entire nation.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promote bilateral contact, travel, cooperation and exchange on a broad scale to remove mutual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and fulfil their responsibility and role as the motive force of national reunification.

We will open our doors to anyone from south Korea, including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personages of all backgrounds, for dialogue, contact and travel, if they sincerely wish national concord and unity.

A definite end should be put to the acts that might offend the other party and incite discord and hostility between fellow countryme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not try, as the previous conservative "regime" did, to block contact and travel by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rata and suppress the atmosphere for reunification through alliance with the north, under absurd pretexts and by invok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stead, they should direct efforts to creat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conducive to national concord and unity.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s soon as possible, the authoriti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raise the banner of national independence higher than ever before, and fulfil their responsibility and role they have assumed for the times and the nation.

Inter-Korean relations are,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n internal matter of our nation, which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resolve on their own responsibility. Therefore, they should acquire a steadfast

stand and viewpoint that they will resolve all the issues arising in bilateral relations on the principle of By Our Nation Itsel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know that they will gain nothing from touring foreign countries to solicit their help on the issu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at such behaviour will give the outside forces, who pursue dishonest objectives, an excuse for their interference and complicate matters further. Now it is not time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o turn their backs on each other and merely express their respective standpoints; it is time that they sit face to face with a view to holding sincere discussions over the issue of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by our nation itself and seek a way out for its settlement in a bold manner.

As for the Winter Olympic Games to be held soon in south Korea, it will serve as a good occasion for demonstrating our nation's prestige and we earnestly wish the Olympic Games a success. From this point of view we are willing to dispatch our delegation and adopt other necessary measures; with regard to this matter, the authoriti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may meet together soon. Since we are compatriots of the same blood as south Koreans, it is natural for us to share their pleasure over the auspicious event and help them.

We will, in the future, too, resolve all issues by the efforts of our nation itself under the unfurled banner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frustrate the schemes by anti-reunification forces within and without on the strength of national unity, thereby opening up a new history of national reunification.

Availing myself of this opportunity, I extend warm New Year greetings once again to all Korean compatriots at home and abroad, and I sincerely wish that in this significant year everything would go well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Comrade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witnessed last year was clear proof that our Party and our state were absolutely correct in their strategic judgement and decision that when we are confronting the imperialist forces of aggression who are attempting to wreck global peace and security and make mankind suffer a nuclear holocaust, our only recourse is the power of justice.

As a responsible, peace-loving nuclear power, our country will neither have recourse to nuclear weapons unless hostile forces of aggression violate its sovereignty and interests nor threaten any other country or region by means of nuclear weapons. However, it will resolutely respond to acts of wreck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Our Party and the government of our Republic will develop good-neighbourly and friendly relations with all the countries that respect our national sovereignty and are friendly to us, and make positive efforts to build a just and peaceful new world.

Comrades,

The year 2018 will be recorded as another year of victory for our people.

At this moment when this year's gigantic march has begun, I am filled with confidence that our cause is ever-victorious as it is supported by the people, and I harden my resolve to make devoted efforts to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will never cease to struggle and advance until achieving the final victory of the revolutionary cause of Juche by relying on the trust and strength of the people, but surely hasten the future of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where all the people lead a dignified and happy life.

Let us all march forward dynamically towards fresh victory of the revolution by displaying the unyielding mettle of heroic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Source: KCNA.

3. 조중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2018.03.28.]

조선어

존경하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
존경하는 팽려원 녀사,
친애하는 중국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례 없이 격변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위대한 조중친선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혁명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조중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나갈 일념을 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당과 국가사업을 령도하는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하게 환대해 주고 있는 존경하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팽려원 녀사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들의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울인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 간부동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나는 깊이 감동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뜻 깊은 이 자리를 빌어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데 이어 《두 회의》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된 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중국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친근한 중국동지들,

나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묵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

나는 위대한 린방을 방문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조중 두 나라 선대 령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조중 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 협조해온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형제적 이웃인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것을 쟁취하고 수호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똑똑히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친선관계 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 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뗫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귀국 인민이 새 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위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의 국제적 권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귀국 인민이 당 제19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새봄에 이루어진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의 뜻 깊은 첫 상봉이 조중친선관계 발전의 풍요한 결실을 안아오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위대한 중국공산당의 강화·발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존경하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팽려원 녀사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Esteemed Comrade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Esteemed Mme Peng Liyuan,
 Dear Chinese comrades,

In the midst of the new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hanging as never before, we are now on a lightning visi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a desire to remain true to the long-standing, historic traditions of great friendship and revolutionary obligation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PRC and to inherit and develop the bilateral relations in a wonderful way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heartfelt thanks to esteemed Comrade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s well as Mme Peng Liyuan, who has managed to find time despite the demanding duties of leading the Party and state and is according a warm welcome to us like his own brothers and sisters.

I have been deeply impressed by the sincerity and solicitude shown by Comrade Xi Jinping and other leading Party and state cadres of China in accepting the proposal for our lightning visit with pleasure and in ensuring a success of our short visit, and I feel very grateful for this.

Availing myself of this meaningful opportunity, I extend warm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wo major

meetings following the grand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election of Comrade Xi Jinping as president of the PRC and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PRC.

I also tender warm greetings of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other Korean people to members of the CPC and other Chinese people.

Dear Chinese comrades,
This is my first visit to China.

That the first place of my foreign visit is the capital city of the PRC is too natural for me, and it is an expression of my ennobling obligation to prize the DPRK-PRC friendship like my life itself and carry it forward.

I deem it a high honour to visit my country's great neighbour, and this visit has given me another opportunity to comprehend the preciousness of the DPRK-PRC friendship, a priceless legacy left by the preceding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nd a treasure common to the two peoples.

For long years the Korean and Chinese peoples supported and cooperated closely with each other, shedding blood and dedicating their lives to the joint struggle. Real life has taught them that their destinies are inseparable. They are now clearly aware that for the two brotherly neighbours with rivers in between, peaceful environment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re critical, and it is costly to secure and defend them.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nd I have just exchanged in-depth opinions on such important issues as the promotion of bilateral friendship and coordination of the pressing problems concern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affirming our common commitment to consolidate the socialist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nd ensure wellbeing and a bright future for the two peoples.

It is the steadfast stand of the WPK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develop, true to the ennobling intentions of the preceding leaders,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a new, higher level, the relationship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acred joint struggle for the cause of socialism and retained its original features even in the whirlwind of history.

Comrades,

Thanks to the leadership of the CPC with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s the core, the Chinese people are achieving brilliant successes in accomplishing their cause of building a modernized socialist power in the new era, and their country is enjoying ever-improving international prestige. The WPK and the Korean people feel very pleased with this as if it is their own.

We sincerely wish that the Chinese people will achiev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by fully implementing the tasks put forward by the 19th Congress of the CPC.

Last, with the belief that my meaningful first meeting with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in this spring, full of joy and hope, will

constitute a significant occasion in bringing rich fruition in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 propose a toast,

To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CPC and the prosperity of the PRC,
To the good health and happiness of respected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nd Mme Peng Liyuan, and
To the good health of all other comrades present here.

Source: KCNA

4. 조중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연설 [2018.03.28.]

조선어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리설주 녀사,
친애하는 조선동지들,
동지들과 벗들,
봄날이 찾아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시절에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
께서는 리설주 녀사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습니다.

나는 중국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 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으로 올려 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품을 들여 키우신 것입니다.

로세대 령도자들께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기나긴 세월에 친형제와

같은 정을 나누시고 서로 진심으로 대하시었으며 두터운 동지애와
우정, 형제 적정을 맺으시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쌍무 관계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본보기를 세워주고 방향을 밝혀주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동지께서는 생전에 40여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어 모택동
주석 동지와 주은래 총리 동지를 비롯한 중국 로세대 령도자들과 두터운
친선의 정을 맺으시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습중훈 동지께서도 생전에 조선 령도자들께서 중국을 방문
하시었을 때 여러 차례나 영접하시었으며 김일성 주석 동지, 김정일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1983년 6월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시었을 때 나의 아버지가 김정일 총비서 동지를 역전에서
맞이하였고 모진 더위를 무릅쓰고 고궁 참관에 동행하였습니다.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는 매우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나 말씀하시었습니다.

내가 2008년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그이께서는 특별히 그에 대해
회고하시었습니다.

조선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며 뿌리 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즐기처럼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선은 우리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서 쌍방이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수호하며 끊임없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시었을 때 조중 친선은 로세대 혁명가들께서 마련하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며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고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방금 전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계승하고 빛내여 나가는 것은 쌍방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는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 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 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튼튼히 틀어쥐며 고위급 래왕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 시기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은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포치에 따라 《두개 백년》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인민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선적인 립방이며 친근한 동지로서 우리는 조선 동지들이 정치적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굳게 지지하며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둘 것을 축원하며 이를 확신합니다.

끝으로 나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하여,

중조 두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리설주 녀사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중조 쌍방 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He said that the visit by Chairman Kim Jong Un is the one of great significance at a special time, and it suffices to prove that Chairman Kim Jong Un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ttach utmost importance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two countries of China and the DPRK. It is also of weighty significance in deepen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sides,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promoting partnership, he added.

He said the visit would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put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two countries on a new stage and promoting the regional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at a new historical time.

The traditional Sino-DPRK friendship was personally provided and cultivated with much effort by the leaders of elder generations of the two parties and two countries, he said.

He noted that President Kim Il Sung visited China over 40 times in his lifetime, forging deep friendly feelings with the Chinese leaders of elder generation including Chairman Mao Zedong and Premier Zhou Enlai.

The traditional Sino-DPRK friendship is the unique one in the world that has been sealed in blood, and it provides the two parties and two peoples with happiness just as a luxuriant tree with deep roots and a

never-drying spring, he pointed out.

When General Secretary Kim Jong Il visited China in May 2010, he said that the DPRK-China friendship is a heritage provided and bequeathed down to us by the revolutionaries of elder generation and that it is our historic and strategic option and unshakable stand to value it generation after generation, Xi Jinping said.

He said he had talks with Kim Jong Un in a friendly atmosphere.

We reached a consensus that it is in the common interests of both sides and a strategic option common to both sides to carry forward and glorify the traditional Sino-DPRK friendship, he said, adding:

We are convinced that no matter how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situations may change, both sides would take firm control of the general trend of the world development and the over-all phase of the development of Sino-DPRK relations, strengthen high-level visits, deepen strategic communication, and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reby providing the two countries and peoples with happiness.

At present the Chinese party, government and people are striving and struggling to realize the "Two Centenary Goals" and the dream of China, i. e. great prosperity of the Chinese nation, under the strategic assignments set forth by the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 Jinping, said that the diligent and resourceful Korean people are making redoubled efforts to build a socialist economic power 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eaded by Chairman Kim Jong Un.

He voiced firm support to the Korean comrades in their active efforts for defending the political stability and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hoped that they would steadily make new greater successes in the cause of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adding he is convinced of it.

CPC Chair Xi Jinping, Supreme Leader, PRC

Source: KCNA

5. 판문점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동발표문 [2018.04.27.]

조선어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 형제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나는 먼저 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더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정작 마주 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겨레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하여준 북과 남 온 겨레의 소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에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겨 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지양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 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의 회담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II

주요 정부 성명

1. 조선 정부 성명 [2014.07.07.]

조선어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부터 민족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통일 로선과 방안들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두 차례의 북남 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 통일 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정책, 방안과 방도들은 가장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온 겨레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 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 관철을 최대의 승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내외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으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고 있다.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6.15시대의 모든 성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으로 새로운 령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는 복잡다단하다.

렬강들의 첨예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주인인 북과 남이 백해무익한 대결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은 외세에게 룡락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현 시기 민족 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이 극도에 달하여 사소한 언행이나 소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동족끼리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립장에서 관계개선
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령전시대의 관념에서 결단코
벗어날 때가 되었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서로 적대시키고 싸워야 할 그
어떤 리유로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시대 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련북
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산물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헌신과 투쟁의 귀중한 열매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기본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종식 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 수뇌
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6.15, 10.4선언을 비롯하여 북남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2. 북과 남은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천년만년이 가도 외세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을 대변해줄 수 없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오늘 외세

개입으로 내전과 혼란에 빠진 여러 나라들의 참혹한 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과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분열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과 남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지지》를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재》와 《공조》를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룡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이다.

우리의 핵은 통일의 장애도, 북남관계 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 무력은 외세의 침략 야망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 만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거들며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외세의 부당한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공동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북남관계 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선다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 것이다.

3.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련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신퇴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허울을 쓰고 《제도통일》,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북과 남에 근 70년 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을 의미한다.

동족이 장구한 기간 갈라져 살아온 것만도 가슴 터지는 일인데 북과 남이 자기의 제도만을 고집하여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자멸 행위는 없을 것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련방련 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

4.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현 시기 화해와 단합의 유리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는 것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동족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비방 중상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북남사이의 혈연적纽대와 동포애의 정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해제하고 접촉과 래왕,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중북척결》소동으로 각계각층의 통일열망이 유린당하고 반공화국 적대의식이 고취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루속히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이번 성의 있는 조치는 랭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우와 같은 우리의 원칙적 립장들과 선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숭고한 책임감에서 출발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립장을 온 겨레가 적극 지지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103 2014년 7월 7일

평양(끝)

Pyongyang, July 7 (KCNA) -- The government of the DPRK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Monday, 20 years since President Kim Il Sung left his last signature on a historic document related to Korea's reunification.

The Korean nation's cause for national reunification is undergoing big difficulties and trials due to the vicious challenge and obstructive moves of the anti-reunification forces at home and abroad, the statement said.

The DPRK government clarifies as follows out of its patriotic desire to tide over the difficulties lying before the nation, improve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open up a fresh turning phase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at present:

1.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end reckless hostility and confrontation and open up the road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The grave situation in which even a single remark and act and tiny friction may lead to a dangerous conflict and destruction of the nation is prevail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 hostility and confrontation have reached the extremes.

We should no longer remain a passive on-looker to this tragic situation in which exhaustive political strife among compatriots may cause tremendous catastrophe of the nation at a crucial time when all the Koreans should pool their strength and wisdom for the cause

common to the nation.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open up the road for improvement of relations from fresh viewpoint and stand for the destiny of the nati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discard the anachronistic concept of hostility and make a bold decision to change its policy for confrontation with fellow countrymen into that for alliance and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They should stop all kinds of the north-targeted war exercises which they conduct with outsiders, a direct product of their hostile policy toward the fellow countrymen in the north.

If they have true willingness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the north, they should opt for respecting and implementing the north-south agreements including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which were provided thanks to the top leaders of the north and the south.

2.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reject dependence on outsiders and settle all issues by the efforts of Koreans.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never fall a victim to outsiders keen on fishing in troubled waters through the division of Korea.

They should solve all issues by their own efforts in the common interests of the nation from the stand of putting the nation above all, attaching importance to the nation and achieving national unity.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never tolerate the unreasonable act of

outsiders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issue of the nation but counter it with joint efforts.

We will join hands with all those includ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f they take the stand of settling the issue of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the reunification issue of the country in line with the desire and wish of the nation.

3.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seek reasonable reunification proposals supported by all Koreans and that guarantee the prosperity common to the nation.

There is increasing demand and requirement of fellow countrymen to achieve reunification through federal formula in Korea where differing ideologies and social systems exist.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north and the south recognized that there are common points in the north-proposed low-level federation and the south-proposed confederation, and agreed to work for reunification in this direction in the future.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specify the reunification proposals by way of federation and confederation and make efforts to realize them and thus actively promote co-existence, co-prosperity and common interests.

4.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create the atmosphere favorab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north-south relations.

To actively create the atmosphere favorable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at present is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extremely

I	최고지도자담화
II	주요정부성명
III	주요기관성명
IV	주요담화
V	기타

deteriorated north-south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put an end to all kinds of calumnies and vituperations that foster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among the fellow countrymen, to begin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at block kindred bonds and compatriotic feeling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be lifted and a broad avenue for contacts, visits, cooperation and dialogue should be opened.

An end should be put at an early date to such an abnormal situation in south Korea in which the desire of th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for reunification is dampened and the hostility against the DPRK is incited through the racket for "eliminating forces following the north".

If the above-mentioned principled stand of the DPRK and measures taken by it in good faith are implemented, an epochal occasion will be provided in normalizing the deteriorated north-south ties, eas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ing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We express the expectation that all Koreans would actively support the principled stand of the DPRK government that was prompted by its noble sense of responsibility to improve the north-south ties and open up a wide avenue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and tha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ould positively respond to it.

Source: KCNA

2. 조선 정부 성명 [2015.06.15.]

조선어

“다시 한번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은 분열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수뇌 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이하고 있다.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평양상봉의 격동적인 사변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평양 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신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 사변이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6.15 시대와 더불어 2007년 10월에 또다시 북남수뇌 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발표하시므로써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었다.

북남관계가 6.15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여 왔더라면 우리 민족의
념원인 통일문제 해결에서 놀라운 전변과 성과들이 이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해 나선 리명박 보수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이러한 파국
상태는 오늘 더욱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고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중대립장을 천명하시였으며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와 미국과 야합한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파국적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70년의 기나긴 민족분렬의 력사로 보나 조선반도를 둘러싼 침예한
주변정세로 보나 북과 남은 하루빨리 대결을 끝장내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 지름길은 이미 실천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오늘
우리 겨레가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리행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임에 따라 엄중한 위기에 처한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1.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통일문제 해결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며 생명선이다.

북과 남은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북남관계와 통일문제 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를 우상화하고 동족을 배척하는 사대 매국의 종착점은 망국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 로골화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문제를 외세에 내맡기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하고 복잡한 오늘의 세계에서 민을 짓은 오직 우리 민족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2.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에 70년 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 보수패당은 언젠가도 실현될 수 없는 《체제통일》에 환장하여 우리에게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 북남관계 악화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존엄과 제도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징벌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체제통일》을 계속 추구하다가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차레지게 될 것이다.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공존, 공영하는 민족통일의 길만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의 방도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 연습을 견어치워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온 겨레의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는 한 북남관계가 언젠가도 개선될 수 없으며 조선반도는 핵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침략자들의 전쟁 도박판에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장본인이며 조선반도에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인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리익을 수호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존엄과 안정,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에 대해 불안과 위구를 느낄 필요가 없으며 그를 시비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모든 침략적 군사연습을 영영 걷어치워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

4. 북남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비방 증상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위험한 독소이며 이를 방치하면 물리적 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져질 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신뢰》니, 《관계개선》이니 하지 말고 우리를 자극하고 헐뜯는 일체 도발행위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극악한 독재통치로 수많은 악재를 빚어내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시비 증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대담하게 철폐하고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5.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북남최고위급에서 관계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마련한 귀중한 합의이며 북남 당국이 민족 앞에 다진 엄숙한 약속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정당하고 그 리행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북남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 깊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온 겨레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15일

평양(끝)

Pyongyang, June 15 (KCNA) -- The DPRK government Monday released a statement to mark the 15th anniversary of the north-south summit,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and the public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Leader Kim Jong Il provided the Pyongyang summit and adopte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rue to the noble intention of President Kim Il Sung who dedicated all his life to the cause of national reunification. It marked a historic event which brought about a turning-point in improving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achieving national reunification, the statement notes, and continues:

The public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made it possible for the north and the south of Korea to defuse the distrust and confrontation which had lasted for more than half century and greet a new era advancing toward reconciliation, unity and reunification by concerted efforts of the Koreans.

Had the north-south relations made steady advance along the way indicated by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eye-opening changes and successes would have been achieved in the drive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e desire of the Korean nation.

However, the north-south relations were brought back to the era of confrontation in the past due to the despicable moves of the Lee Myung Bak conservative group which totally denied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s and this catastrophe has reached a grave phase at present.

Upon the authorization the DPRK government in its statement clarifies the following stand, prompted by the will to save the north-south relations from a serious crisis and bring about a landmark turn in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1. It is necessary to have a firm stand to improve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solve the reunification issue independently by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Korean nation.

It is the basic spiri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o solve issues related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matter of the country's reunification independently by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Korean nation responsible for it.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settle all the issues arising in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achieving reunification in line with the interests and desire of the nation with strong national self-respec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stop solici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hurt the fellow countrymen in the north by relying on outside forces, not leaving the national issue to their tender mercy.

They should come out for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olving the reunification issue by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Koreans.

2.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not seek "unification of social systems" inciting d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Now that differing ideologies and social systems have existed in the north and the south for the past seven decades, any attempt to achieve reunification under one social system would bring nothing but confrontation and war.

The north and the south recognized the common points in the north-proposed federation of lower stage and the south-proposed confederation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agreed to work for reunification in this directi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clearly understand that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the north and the south irrespective of ideology and social systems are the most reasonable and realistic way for national reunification.

3.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stop north-targeted war exercises in collusion with the U.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taged ceaseless war rehearsals against the north such as Key Resolve and Foal Eagle joint military exercises in league with the U.S., chilling the desire of all Koreans for reunification and scuppering the golden chances for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inter-Korean relations can never improve nor can the Korean peninsula get rid of the danger of a nuclear war as long as these

I
최근 지도자 발언
II
주요 정부 성명
III
주요 기관 성명
IV
주요 담화
V
기타

military threat and provocations persis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halt such dangerous act as leaving the life and safety of the Koreans exposed to the war shambles of aggressors as a shock brigade in carrying out the U.S. strategy for dominating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is no need for them to feel any uneasiness and fear of the DPRK's self-defensive deterrence for protecting the dignity, stability and peace of the nation but they should discontinue acts of treachery of taking issue with it.

They should put a definite end to all military drills with the U.S. and come out for defend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Korean nation.

4.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limate for mending the north-south relations.

Slandering each other is a venomous practice fostering distrust and hatred towards fellow countrymen and such practice, if unchecked, may lead to physical conflict and war.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not just pay lip-service to "confidence-building " and "improvement of relations" but stop all provocations of rattling the nerves of the DPRK and slandering i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boldly rem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blocking north-south contacts, visits,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create environment favorable for repairing the

relations.

5.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take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the historic north-south joint declarations.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are valuable agreements made at the summi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and co-prosperity and solemn promises made by the north and the south authorities to the nation.

If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s should be denied and their implementation suspended because of regime changes, no issue can be settl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futur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not just pay lip-service to respect for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but prove it in practic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bear in mind that they are now standing at the crossroads: Whether they join hands with the north to repair the inter-Korean relations or they will meet the same miserable end as what their predecessors did while standing in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to the last.

Consistent is the stand of the DPRK to pave a wide avenue to independent reunification by bringing about a great turn in the north-south relations.

Source: KCNA

3. 조선 정부 성명 [2016.07.06.]

조선어

“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

핵이 없는 세상, 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더우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시었으며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남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 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 것도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적대세력들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과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이미 우리는 그 관철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은 의연히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니, 《북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그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는니 하는 궤변만 집요하게 늘어놓으면서 내외 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조미 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건설적 제안도 《선 북핵포기》라는 황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는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과 대화노력에 대해서도 《선 북비핵화》의 악청으로 정면 도전해 나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패당은 《선 북비핵화》를 만능의 구걸 방편으로 내들고 여기저기를 분주히 싸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압박공조를 빌어대느라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한 어리석은 처사이며 명실상부한 핵전범자들이 저들의 구린내 나는 정체는 덮어두고 우리의 핵 포기를 강요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켜온 주범들로서 그 무슨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 초보적인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난 세기의 50년대 조선 전쟁 때 원자탄 공갈로 한집안, 한 피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준 것도 모자라 전후 남조선에 무려 1,00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크고 작은 북침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전대미문의 핵위협을 계속 가해온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다.

이 땅에 무시로 들썩워지는 무분별한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진지한 노력에 의해 1990년대 초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 되었지만 이를 로골적으로 짓밟으면서 사문화시킨 장본인 역시 다름 아닌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정책》을 표방하면서 괴뢰패당을 내세워 남조선에 범죄적인 핵무기 반입을 계속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친미 보수세력은 조선반도에서 핵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적극 동조해왔으며 특히 박근혜 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미국의 3대 전략 핵 타격 수단들을 모두 끌어들이며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소탄까지

포함한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전략타격 수단들을 갖추게 된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필연적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 패당이 게거품을 물고 《북핵위협》을 떠들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핵 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된 자괴심에서 오는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정의와 양심에 묻는다.

그래 미국은 언제이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엄청난 재난과 불세례를 고스란히 앓아서 당해야만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오늘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만능의 법칙인가.

어찌하여 핵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막대한 불행과 희생을 들썩운 미국에 대하여서는 단 한 번도 핵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최대피해자인 우리에게 대해서만 핵을 내려놓으라고 강박하는가.

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이고 엄중한 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북비핵화》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통할 수 없는 근본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의 핵 우세를 지속시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그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핵 포기를 운운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체계적으로 방해해온 최악의 과거부터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열도당도않은 《핵위협》과 《도발》의 감투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일방적인 《북비핵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 손으로 만들어놓은 핵 매듭을 제 손으로 푸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은 《선 북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 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수십 년 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 대상이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고 순차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 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 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상전과 맞장구를 치면서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고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말 것을 충고한다.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핵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도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주체105(2016)년 7월 6일

평양 (끝)

Pyongyang, July 6 (KCNA) -- The DPRK at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larified its policy stand that it will remove the root cause of the threat of nuclear war created by the U.S. and safeguard peace in the region and the rest of the world by means of our powerful nuclear deterrent, it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first, unless the hostile forces violate our sovereignty with their own nuclear weapons, and it will faithfully observe its commitments to nuclear non-proliferation, which it has made b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trive for global denuclearization.

The DPRK has entered the new phase of its drive for implementing the stand.

But the U.S. ,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other forces hostile toward the DPRK are spinning out sophism that the nuclear weapons of the DPRK are a "threat" to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that no problem can be settled unl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is achieved first", misleading the public opinion at home and abroad.

The U.S. has declined the DPRK's constructive proposal for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under such absurd preconditions as "north's dismantlement of nukes first" and squarely challenged the DPRK's sincere proposals and efforts for dialogue for the improvement of the north-south ties and Korea's reunification with such words as "north's denuclearization first".

The Park Geun Hye group, in particular, is resorting to all sorts of despicable deeds to solicit cooperation for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 DPRK whenever an opportunity presents itself while busily going here and there with the "north's denuclearization first" as a cure-all pretext.

In a statement on Wednesday a spokesman for the DPRK government denounced this as a foolish act of totally twisting the essence of the denuclearizatio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ridiculous act of nuclear war criminals to cover up their true colors and force the DPRK to scrap its nuclear program.

The denuclearization being called for by the DPRK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this includes the dismantlement of nukes in south Korea and its vicinity.

The U.S. and the puppet forces have neither elementary qualifications nor face to talk about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s they spawned and have complicated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atement said, disclosing how the U.S. and the puppet forces derailed the process for th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If the U.S.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an iota of interest in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should accept the principled demand of the DPRK before anything else, the statement said, and went on:

Firstly, all the nuclear weapons should be opened to public, first of all, which the U.S. has neither acknowledged nor denied after

bringing them to south Korea.

Secondly, all the nukes and their bases should be dismantled and verified in the eyes of the world public.

Thirdly, the U.S. should ensure that it would never bring again the nuclear strike means to south Korea, which the U.S. has frequently deploy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its vicinity.

Fourthly, it should commit itself to neither intimidating the DPRK with nukes or through an act of nuclear war nor using nukes against the DPRK in any case.

Fifthly,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holding the right to use nukes from south Korea should be declared.

If the U.S.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ruly want to see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a "peaceful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ere will be no reason for them to turn down the just demand of the DPRK.

If such security guarantee comes true, the DPRK will also take steps in response to it and a decisive breakthrough will be made in realizing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aking this opportunity, the DPRK warns Park Geun Hye and other south Korean authorities not to play trickery any more to seek loopholes crying ou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in collusion with their master but face up to the present reality.

If they desperately defy the principled demand of the DPRK, the

latter's nukes will be further bolstered up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nd its capacity will reach its maximum. They should bear this in mind.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ntirely hinges on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S.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	최고 지도자 사망
II	주요 정부 성명
III	주요 기관 성명
IV	주요 문화
V	기타

Source: KCNA

4. 조선 정부 성명 [2017.08.07.]

조선어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 있다.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이번 유엔 《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가 최강의 핵 무력을 보유한 것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의 련이은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는 태평양 건너에 틀고 앉아 우리에게 대한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을 벌리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길로 나올 대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훈련에 광분하고

수많은 전략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 리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 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냄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슨 군사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제넘은 망언을 내뱉으며 입에 게저품을 물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세계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 않게 덩지 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짓어대는 몰골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 있다.

미국의 주도 하에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 《제재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쥘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새로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 보장理事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세계최대의 핵 보유국인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리익에 복종하는 식민지가 되든가 아니면 침략의 희생물로 되어야 한다는 날강도적 논리이다.

세상에서 핵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서 핵 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 핵 무력 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 기준의 극치이다.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 억제력을 협상 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안전 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는 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말 것이다.

셋째,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다.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의 강토를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그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보려고 세기를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대양 건너에 있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번에 미국과 뒤골방쪽덕 공론을 벌여놓고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치우지 않고 경계 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7일

평양(끝)

Pyongyang, August 7 (KCNA) --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Monday issued a statement over the fact that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terrified at the growth of the DPRK's state nuclear force in quality and quantity, are steeped in the most intensive sanctions, pressure and provocations against it.

The statement says:

On August 6, the U.S. framed up "sanctions resolution" 2371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is geared to completely block the DPRK'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elihood, branding its test-launch of ICBM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UN "sanctions resolution", to all intents and purposes, is an outcome of diabolical attempts of the U.S. to isolate and stifle the DPRK, which constitutes a flagrant infringement upon its sovereignty and an open challenge to it.

The DPRK's access to the strongest nuclear force is a fair and legitimate measure for self-defense to protect the country's sovereignty and the nation's right to existence from the high-handed and arbitrary acts of the U.S. which has made it its business to pursue the policy of extreme hostility and pose nuclear threat to the DPRK well over half a century.

The successive test-launch of ICBM by the DPRK was a stern

warning to the U.S. which, being entrenched far across the Pacific, wages reckless and perilous military provocation and despicable campaign of sanctions on the DPRK.

However, the U.S. goes more frenzied and desperate instead of accepting the DPRK's existence and learning to coexist with the latter. It is trying to drive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brink of nuclear war, running amuck to conduct missile drill against the DPRK and deploying massive strategic equipment to the peninsula.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U.S. manipulated UNSC to rig up the "sanctions resolution" more heinous than ever, placing a total ban even on normal trade activities and economic exchange, thereby disclosing before the whole world its evil intention to obliterate the ideology and system of the DPRK and exterminate its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U.S. causes such a racket with no time to wipe their mouth, making impudent remarks that it is considering the so-called military option targeting the DPRK.

There are countries to which the ridiculous threats of the U.S. are working and there are countries which lie prostrate at the bluff of the U.S.

The U.S. claiming to be the "only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DPRK's neighbors hardly any smaller in size than the U.S. are all so frightened at merely two ICMB test-launches by the DPRK that they are making much a scene baying at each other. Watching them go frantic only redoubles the DPRK's pride in the country's great might

I	최고 지도자 김정은
II	주요 정부 성명
III	주요 기관 성명
IV	주요 문화
V	기타

and reaffirms its faith that the path it had chosen is the only way to survive and prosper.

The DPRK has already gained everything it needed while having everything wanted in its hands through an arduous struggle under the harshest sanctions regime created by numerous UN "sanctions resolutions" adopted at the instigation of the U. S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It is only a forlorn hope to consider any chance that the DPRK would be shaken an inch or change its stance by the sanctions of this new kind imposed upon by the hostile forces.

As the U.S. launched full-scale provocation against the DPRK across all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military, nothing can alter the will and resolve of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to respond by taking resolute retaliatory measures.

The DPRK Government solemnly states as follows to cope with the grave situation created by the frantic acts of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First, the DPRK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and totally rejects the anti-DPRK "sanctions resolution" of the UNSC rigged up by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as a wanton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The DPRK is tak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self-defensive nuclear deterrence in order to counter the policy of extreme hostility and nuclear threat against it from the U.S., the biggest nuclear weapons state of the world. Terming these measur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 a gangster like logic indicating

that the rest of the world should either become U.S. colonies serving its interests or fall victim to its aggression.

The countries, that openly pursue their ambition to maintain permanent nuclear hegemony by conducting most of the nuclear tests in the world and launching ICBM whenever they please, are adopting illegal and unlawful "sanctions resolutions" to incriminate the DPRK's bolstering of self-defensive nuclear force and enforcing those sanctions over its alleged "violation" of them. This constitutes the height of outrageous double standard.

As long as the U.S. hostile policy and nuclear threat continue, the DPRK, no matter who may say what, will never place its self-defensive nuclear deterrence on the negotiation table or flinch an inch from the road chosen by itself, the road of bolstering up the state nuclear force.

Second, now that the U.S. did forge the "sanctions resolution" by manipulating the UNSC to obliterate the DPRK's sovereignty and rights to existence and development, the DPRK will move into its resolute action of justice as it had already clarified.

The U.S. is acting absurd by resorting to the anachronistic sanctions and pressure campaign against the DPRK, instead of appreciating the strategic status of the DPRK and paying proper attention to its repeated warnings. The unwise conduct of the U.S. will only speed up its own extinction.

As the gangsters of the U.S. remain unabated in their mean and heinous provocation, the DPRK will further increase the strength of justice to thoroughly eradicate the cause of war and aggression and

I	최고 지도자 김정은
II	주요 정부 성명
III	주요 기관 성명
IV	주요 문화
V	기타

never back away from this fight to a finish.

Third, the DPRK will make the U.S. pay dearly for all the heinous crime it commits against the state and people of this country.

The U.S. once waged a tragic war that plunged this land into a sea of blood and fire, and has been leaving no stone unturned to obliterate the DPRK's ideology and system century after century. The U.S. is sadly mistaken if it considers its mainland a safe haven for being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Those countries which were offered "thanks" from the U.S. as a reward for taking part in the conspiracy to invent the heinous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the DPRK through their backdoor arrangement this time, too, would never be able to evade the responsibility for increasing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eopardizing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If the U.S. fails to act with discretion, persisting in its reckless attempts to stifle the DPRK, we will not waver or hesitate to use any form of ultimate means.

The DPRK will hold fast to the line of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two fronts, the lasting banner of defending peace, and continue to march straight forward to the end of the road chosen by itself without the slightest deviation.

Source: KCNA

5. 조선정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한 성명 발표 [2017.11.29.]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하여 29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 로켓 《화성-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 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가 지도하는 속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은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되었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 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 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켓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 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강국이며 평화애호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끝)

Pyongyang, November 29 (KCNA) --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following statement Wednesday over the successful test-fire of new-type ICBM:

The test-fire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Hwasong-15, newly developed under the political resolution and strategic deci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ICBM Hwasong-15 type weaponry system i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capable of carrying super-heavy warhead and hitting the whole mainland of the U.S. This system has much greater advantages in its tactical and technological specifications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than Hwasong-14 whose test-fire was conducted in July last, and it is the most powerful ICBM which meets the goal of the completion of the rocket weaponry system development set by the DPRK.

Upon authorization of the WPK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ICBM Hwasong-15 was launched at 02:48 on Nov. 29, Juche 106 (2017) in the suburbs of Pyongyang under the guidance of Comrade Kim Jong Un.

After making a 53-minute flight along its preset orbit, the rocket accurately landed in the target waters set in the open sea in the East Sea of Korea.

The test-fire was conducted in the highest angle launch system and it had no adverse effect on th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ocket soared to the highest altitude of 4 475 km and flew the distance of 950 km.

After watching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new type ICBM Hwasong-15, Kim Jong Un declared with pride that now we have finally realized the great historic cause of completing the state nuclear force, the cause of building a rocket power.

The great success in the test-fire of ICBM Hwasong-15 is a priceless victory won by the great and heroic people of the DPRK who have upheld the WPK's line o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two fronts with loyalty without the slightest vacillation despite the vicious challenges by the U.S. imperialists and their followers and manifold difficulties.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the strategic weapon of the DPRK are to defend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 from the U.S. imperialists' nuclear blackmail policy and nuclear threat, and to ensure the peaceful life of the people, and therefore, they would not pose any threat to any country and region as long as the interests of the DPRK are not infringed upon. This is our solemn declaration.

As a responsible nuclear power and a peace-loving state, the DPRK will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serve the noble purpose of defend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world.

Source: KCNA



III

주요 기관 성명

1. 조선 외교부 성명 [1994.04.28.]

최근 조선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정전감시기구를 마비시키는 미국의 불법 행위들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조미관계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전망이 보이던 제3단계 조미회담을 결렬시켜 놓고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여론의 일치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은 패트리엇 신형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4월말까지는 실전 배비하여 올해 11월에는 핵전쟁 연습인 팀스피리트 '94합동군사연습 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남조선에 아파치직승기 대대를 증강한 미국은 앞으로 한 개 여단급의 각종 전투장비들을 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집중된 미국이 해상무력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와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파기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외부로부터 작전물자 반입과 무력 증강을 하지 않는 것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그때부터 벌써 일방적으로 협정의 합의 서한들을 파기해 버렸으며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들을 끌어들이었다.

지난시기 미국은 그래도 조선정전협정이 두려워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은폐된 방법으로 비밀리에 끌어들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신형미사일들과 전투기술 장비들을 백주에 공공연히 반입 배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치되게 협정의 합의 서한들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감시기구마저 마비시켰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미국은 자기들의 협정 위반 행위가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해 폭로되게 되자 1956년 6월에 정전협정 제2조 3항에 따라 조직된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 소조를 자기 측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철수시켰으며 1991년 3월에는 정전협정에 비추어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자기 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때까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기해 온 것으로 보나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심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압살해 보려는 데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무력과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도 제 마음대로 격화시켜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정전

미국은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이 평화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1994년 4월 28일

평양

2. 조선 외무성 성명: 정전협정 당사국에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2010.01.11.]

조선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정책적 목표이다.

공화국정부의 성의 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 되었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본합의문'과 9.19 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 반단되었거나 통채로 뒤집혀졌다.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 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 과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젠가든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도 6자회담은 반공화국 제재라는 불신의 장벽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다시 궤도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 당사자들인 조미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조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 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 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회담 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그 어떤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대였어야 했다.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 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행동순서를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실천적 요구에 맞게 앞당기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 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지난 10월 3일 도쿄 한복판에서 세계에 대고 청을
돋군 미국무장관 케리의 불가침 타령이다.

이날 케리는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시작한다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비핵화 시작이 분명해지면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도
맺고 불가침조약도 체결할 것이라고 희뜩희뜩 회설수설하였다.

말하자면 우리가 핵무기를 내놓으면 대화도 있고 관계개선도 있으며
불가침도 있다는 감언리설로 감히 그 누구를 흔들어보려고 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맨몸으로 나왔으면 화친을 하겠다는 미국식 파렴치성과
교활성의 극치이다.

세계사의 갈피에는 불가침과 관련한 일화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언제 그 어디에도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내리게 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달라붙은 나라는 있어본 적이 없다.

원래 불가침조약은 속내는 어떠한 고유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침략과 무력간섭을 포함한 일체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기로
담보하는 확약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미행정부의 정객들이 것처럼 현명하고 진정으로 우리와 불가침
조약체결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 마땅히 지난 세기 3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 년 기간 여러 국제조약들과 유엔헌장에 규제하여
놓은 불가침의 몇 가지 원칙만이라도 다시 공부했어야 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지난 세기 40년대 이전 쏘련에 대한 불의침공을
가리우기 위해 체결하였던 파쑈 도이츨란드의 불가침조약이나 진주만에
대한 불의타격으로 미국을 허우적거리게 만들려고 벌린 군국주의
일본의 불가침외교의 기만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난날 세계를 놀래우며 상대를 굴복시키던 미국의 《포함》공세나 첨단을 으시대는 공중우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놀래우고 악랄한 정치경제적인 고립 압살 책동이 우리 공화국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을 없을 것이다.

지금은 19세기도, 20세기도 아닌 21세기 10년대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기의 흐름과 더불어 미국의 핵 공갈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핵 타격 수단으로, 미국의 전면공격에는 전군, 전민, 전국이 떨쳐나선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맞받아 대응할 수 있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미국의 비극은 역센 기상을 떨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조선, 우리의 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그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지어 미국은 《혈맹》으로 취주고 있는 몇몇 괴뢰주구들의 아양에 취한 나머지 오랜 세월 반미라는 말 한마디도 입에 올리기 두려워하던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 공화국을 따라 미국을 평화 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제일 못된 침략자로, 통일 대신 분열과 지배만을 노리는 날강도로, 보기 싫고 대하기 싫은 강점자, 략탈자로 낙인하고 반미 열풍을 세차게 몰아올 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남조선의 수백, 수천만 인민들까지 따라나선 우리 공화국을 똑바로 알고 덩치 큰 나라답게 제 처신만이라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처사는 신통히 고래를 낚겠다고 복어 미끼를 들고 헤엄치는 무식하고 가련한 낚시군의 신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대화나 교활한 불가침에 숨겨진 민지를 가려보지 못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2. 미국은 낚은 사고와 구태에서 벗어나 때늦기 전에 해묵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한동안 미국은 우리와 비공개로 만나서는 사실 저들에게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철면피하게 너스레를 떨곤 하였다.

요즘에는 공식마당에서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정책도, 우리를 공격하여 정권을 교체할 의사도 없다는 식으로 여론공세를 펴고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예나 다름없이 우리를 《악의 축》, 《법치기준》과 《국제행동규범》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불량배나라》로 규정하고 온갖 제재와 고립봉쇄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이면서 체제전복 시도를 실현해보려고 악착스럽게 놀아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제도를 조기에 《붕괴》시키려고 피 눈이 되어 날뼉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분노로 끓게 하였다.

그때 부쉬 미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일극세계 수립에 도전하는 《일류급테로국가》, 《불량배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로 단정해놓고 전면봉쇄와 선제공격에 의한 우리의 체제전복을 최종목표로 내세운 강도적인 정책이었다.

그런데 요즘 오바마 미행정부 역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강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선행미행정부의 《5027》, 《5029》, 《5030》과 같은 작전

계획의 시행도 성차지 않아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맞춤형억제전략》까지 고안해 낸 것이다.

결국 미국은 골수에 배인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으로 하여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내놓은 우리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미국이 바라는 세계의 비핵화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의 대범한 요구도 일일이 밀막아버리면서 오직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먼저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끈질긴 봉쇄조치와 군사적 압박공세를 강화하는데 몰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대조선적대시 정책도, 우리를 공격할 의사도 없다는 미국의 떠벌임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우롱하기 위한 서푼짜리 회유기만극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래 미국은 조선반도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인민에게 잇을 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들썩운 침략자이며 장구한 세월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안겨주고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피에 맺힌 원한과 보복을 면하려면 마땅히 낡은 사고와 구태에서 벗어나 때늦기 전에 해묵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악명 높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시대를 다 산 저들의 처지는 물론 상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안된 것으로 하여, 강도적이고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침략론리에 기초한 것으로 하여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3.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고립 압살 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공화국정부가 실현하려는 불변의 정책적 목표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이 비핵화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 애호적이며 힘 있는 물리적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이 우리의 비핵화에 대하여 반대할 하등의 리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코에 걸고 여러 가지 핵 타격 수단들을 우리의 령공, 령해, 령토 가까이 때 없이 들이밀며 우리를 쉬임 없이 공갈하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잡이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를 먹어보려는 미국의 위협과 공갈이 지속될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시간이, 미국에는 처참한 운명의 길을 재촉하는 시간만이 차례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 타격 수단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욱더 강성하게 되지만 미국은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물거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강권으로 살찌고 번창해온 미국은 벌써부터 제가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략엽 속에 묻히운 옛 로마나 파쑈도이첼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 있다.

미국은 다 기울어진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부당한 구실을 만들어 조작해낸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제재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 미싸일 발사라고 밀어붙이며 여론을

오도하고 자위적인 핵 시험을 국제질서 위반으로 매도하여온 미국이 늦게나마 저지른 죄행을 씻자면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제재를 령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

미국은 때 없이 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핵 공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핵위협과 공갈의 도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미국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언급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체제 전복과 령토 강점을 넘겨다보며 별리는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전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분별없는 도발이 우리의 보복타격으로, 미국과 최종결단을 낼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기회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지만 탐욕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고립 압살 봉쇄조치를 철회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미 관계개선의 길이 있고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본토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담보가 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엄숙한 경중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체102(2013)년 10월 12일

평양(끝)

Pyongyang, October 12 (KCNA) -- The spokesman for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NDC) of the DPRK in a statement Saturday revealed the deceptive nature of the rhetoric about non-aggression on the DPRK made by the U.S. recently, and principled stand of the DPRK on the DPRK-U.S. relations.

The statement said:

The tense situation that pers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six decades after the ceasefire has not developed into a war. This is entirely thanks to the peace-loving efforts and just struggle waged by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despite their bitter pain resulting from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On October 3 U.S. Secretary of State Kerry said that if the DPRK starts denuclearization first, the U.S. will be ready to have dialogue with it and that if it becomes clear that the DPRK started denuclearization, Washington will open peaceful relations with Pyongyang and sign a non-aggression pact.

Disclosing the hypocritical nature of his remarks, the statement went on:

His remarks, which mean that the U.S. will enter into friendly relations with the DPRK after it is left bare-handed, are the height of American-style impudence and craftiness.

We are well aware that even though it clamored for non-aggression, the U.S. is running the whole gamut of intrigues to lead the DPRK to "change" and "collapse", while persistently opposing the withdrawal of its aggression troops from south Korea.

The U.S. call on the DPRK to lay down arms and remain bare-handed is an intolerable mockery and insult to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It is disgusting to see the U.S. playing the role of a leading character with high skill in the charade.

The U.S. proposal for non-aggression cannot guarante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nuclear-armed revolutionary forces for self-defence of the DPRK can defend and guarantee everything.

The statement clarified the principled stand of the DPRK as follows as the U.S. takes issue with the nuclear issue and talks about the DPRK-U.S. relations while escalating all sorts of pressure offensives against the DPRK:

1. If the U.S. truly wants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the DPRK, it has to properly understand the DPRK and behave as befitting a big power.

The DPRK is no longer a small and weak country which used to be in the past when it was hacked at the point of bayonets of big powers for it had neither sovereignty nor arms.

The U.S. is seriously mistaken if it thinks it can frighten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through the "gunboat" offensive, with which it used to browbeat the world and bring its rival to its knees in the past, and through the superiority in the air based on latest science and technology, and can hurt the DPRK through the vicious moves for isolating and stifling it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U.S. tragedy is that it does not know about the DPRK which is demonstrating its strong spirit and its army and people who love and value their country more than their own lives.

If the U.S. truly wants to mend the relations with the DPRK, it should properly understand the DPRK supported even by tens of millions of south Koreans, and behave itself as befitting a big country.

The U.S. should no longer talk about dialogue and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preconditions nor maintain the brigandish insistence that non-aggression is possible only when the DPRK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first.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can discern the ulterior intention concealed in the dialogue and non-aggression proposed by the U.S.

2. The U.S. should discard the old way of thinking and outdated stand and abandon the threadbare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before it is too late.

For a good while the U.S., when meeting with DPRK officials behind closed doors, used to talk volubly that Washington has no intent to pursue policy hostile toward the DPRK. In recent public appearances

Washington is working hard to build public opinion, claiming that it has neither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nor willingness to replace the regime in the DPRK by attacking it. But in actuality it is working hard to realize its attempt at the regime change while systematically escalating all sorts of sanctions, isolation and blockade against the DPRK after invariably labeling it as part of "an axis of evil" and a "rogue state" behaving contrary to "law standard" and "international cord of conduct."

The situation goes to fully prove that the U.S. assertions that it has neither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nor intent to attack it are a poor farce for deceiving the public at home and abroad and mocking at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If the U.S. wants to escape the pent-up grudge and retaliation of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it should drop its old way of thinking and outdated stand and make a bold decision to roll back its old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before it is too late.

3. The U.S.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ift all steps for isolating and stifling the DPR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consistent policy goal set forth by the DPRK government. It call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including south Korea.

This denuclearization is a peace-loving and powerful physical means for defusing all the U.S. nuclear threats to the DPRK and denuclearizing

the world.

If the U.S. continues threat and blackmail against the DPRK, the DPRK will get more time in its favor and the U.S. will only precipitate its miserable end.

In other words, the DPRK will prosper with increasing vigor and strength, as it has smaller, diversified and precision nuclear weapons, but the U.S. will remain as a bubble marginalized in history.

The U.S. should, first of all, lift all the sanctions it imposed against the DPRK under absurd charges, if it wants to get rid of the present poor situation.

It should stop resorting to the stereo-typed nuclear blackmail against the DPRK.

The further the U.S. escalates its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the deeper it will find itself in self-contradiction and bottomless labyrinth.

What we would like to emphasize is that the U.S. should take a bold decision to halt at once all the provocations against the DPRK including war exercises which aim at bringing down its social system and territorial invasion.

Explicitly speaking, the U.S. should make a policy switchover by withdrawing all the measures it has taken to isolate and stifle the DPRK as part of its greedy pivot to Asia-Pacific strategy.

Herein lies the way for improving the DPRK-U.S. relations and

I
고려
II
주요
III
주요
IV
주요
V
기타

guaranteeing peace and secu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U.S. mainland.

Source: KCNA

앞세우지 않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유관측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비핵화론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또 핵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보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설사 한때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하여도 그 리행으로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가장 주되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그 기본표현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핵 타격 수단들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군사적 도발행위들이 주기적으로 모든 협상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만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있다.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결론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방도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쟁도발을 억제해나가는 랭전의 방법이다.

지금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방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핵 억제력의 덕택이다.

다른 하나의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 나오으로써 신뢰에 기초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먼저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며 조미 사이에 우선 원칙적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유엔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지지고무해 나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한성원국과 《유엔군사령부》가 교전관계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는데 자기 몫을 해야 할 것이다.

조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여 당면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핵 군비 경쟁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으며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수 있다.

미국은 더는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무턱대고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심중하게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까지도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외면하거나 그에 조건부를 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될 것이다.

미국이 끝내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조선반도에서 보게 될 것은 우리의 무한대한 핵 억제력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이며 마주치게 될 것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기꺼이 상대해주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일 뿐이다.

주체104(2015)년 10월 17일

평양(끝)

As already known to the world, at the recent 70th UN General Assembly the DPRK re-clarified its fair and aboveboard stand to repla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A) by a peace treaty.

This was prompted by the urgent need to defuse the danger of a war caused by the potential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e climate for durable peace.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in last August when a trifling accidental case created a touch-and-go situation all of a sudden finally proved that the present AA could no longer avert a conflict and defuse the danger of a war.

An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much effort thanks to the DPRK's peace-loving stand and persevering patience but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agreement will be preserved and implemented as desired.

It is becaus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 party to the agreement, do not have any prerogative of command over any armed force in south Korea and are not in a position to reject any joint military drill imposed by the U.S.

It is as clear as noonday that if a conflict occurs again in the area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due to the escalating tension, it will spill over into an uncontrollable all-out war.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held so far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proved that no issue in which the countries concerned including the U.S. are interested can be settled unless a peace treaty is concluded before anything else.

The DPRK once discussed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t the six-party talk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ssertion of the countries concerned tha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should be discussed before anything else and simultaneously discussed both the nuclear issue and the issue of ensuring peace in the past. But all these discussions proved futile and, even when a partial agreement was reached, it was not implemented.

This was mainly because the U.S. persistently pursued its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and its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introduction of nuclear striking means into south Korea, its vivid manifestation, periodically chilled the atmosphere of all negotiations and ratcheted up the tension on the peninsula.

In order to put a definite end to the evil cycle of escalating confrontation and tens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AA by a peace treaty before anything else. This is the conclusion drawn by the DPRK.

There are two ways for ensur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first one is the Cold War way in which the DPRK has to bolster its capability for self-defence with its nuclear force as a pivot in every

I
최근 고도화
II
주요 정책 방향
III
주요 기관 설명
IV
주요 담화
V
기타

way so as to cope with the U.S. increased nuclear threat and war provocations.

It is entirely thanks to the DPRK's nuclear deterrence that all-out war is averted on the peninsula in a state of ceasefire.

The other way is for the U.S. to roll back its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and respond to the call for concluding the peace treaty with the latter so as to ensure genuine and lasting peace based on confidence.

The issue of replacing the AA by a peace treaty is the matter on which the U.S. should make bold decision first and there should be a principled agre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 to begin with.

The UN, too, should positively support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and thus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putting an end to the abnormal situation where its member country is technically at war with the "UN Command"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he DPRK and the U.S. helps remove the source of imminent war, it is possible to finally put an end to the nuclear arms race and consolidate peace.

The U.S. should drop the idea of groundlessly shunning the issue of concluding the peace treaty and prudently take a right option.

If the U.S. shuns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or puts a conditionality on it even at this time when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has reached a crucial turning point, this attitude will clearly show the world that it has no intention to roll back its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If the U.S. insists on its hostile policy, it will only see the DPRK's limitless bolstering of nuclear deterrence and the growth of its revolutionary armed forces capable of fighting any form of war to be ignited by the former.

I

고려
사건

II

주
요
성
명

III

주
요
성
명
|
기
관

IV

주
요
성
명
|
기
관

V

기
타

Source: KCNA

5. 조선 핵무기연구소 성명 발표 [2018. 05. 24.]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는 24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 연구소에서는 주체107(2018)년 5월 24일 핵 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핵 시험장 폐기는 핵 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봉락시키고 갱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상의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데 따라 핵 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핵 시험장의 2개 갱도들이 임의의 시각에 위력이 큰 지하 핵 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리용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국내 기자들과 국제 기자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 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True to the decision of the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Nuclear Weapons Institute of the DPRK held a ceremony for completely dismantling the northern nuclear test ground of the DPRK on May 24 Juche 107(2018), to ensure transparency of the discontinuance of nuclear test.

Dismantling the nuclear test ground was done in such a way as to make all the tunnels of the test ground collapse by explosion and completely close the tunnel entrances, and at the same time, explode some guard facilities and observation posts on the sit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were neither leakage of radioactive materials nor any adverse impact on the surrounding ecological environment.

Complete closure of the area surrounding the nuclear test ground will come on the heels of successive removal of all ground observation facil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structures of guard units, and withdrawal of staff concerned.

It has been confirmed by local and international reporters that two tunnels at the nuclear test ground were ready for use for carrying out very powerful underground nuclear tests at any time.

The dismantling of the nuclear test ground conducted with high-level transparency has clearly attested once again to the proactive and

peace-loving efforts of the DPRK government being made for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ver the world.

The discontinuance of the nuclear test is an important process moving towards global nuclear disarmament, and we will continue to join hands with the world peace-loving people in building a nuclear-free peaceful world, a new independent world where the dream and ideal of humanity are realized.

I	고향
II	주요성명
III	주요기관성명
IV	주요담화
V	기타

Source: KCNA



IV

주요 담화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의 제약일방으로 되어있는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법률적 기초도 없는 미국의 창안품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존립의 법률적 기초로 삼고 있는 1950년 7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 결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군》의 조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유엔 성원국들이 제공한 《무력과 기타 원조를 미국이 통솔하는 연합사령부가 사용》하도록 할 데 대한 권고를 한 것이다.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 있는 이른바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미국이 저들이 통솔한 추종국 무력에 제멋대로 《유엔》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데 불과한 것이다.

유엔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을 관할하지도 않았고 그에 평화유지 사명을 부여한 것도 없다.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이란 다른 아닌 미국의 대아세아 전략수행에 복무하는 미군이다. 따라서 미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한 미국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회피할 수 없는 법률적 당사자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 무력에 대한 작전지휘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행사하여 왔으며 또 지금도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자기 무력에 대한 완전한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남조선 강점 미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남조선당국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에 끼여들었댔자 사태를 복잡하게 할뿐이지 아무것도 할 일은 없다.

더우기 우리와 북남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리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놓은 남조선당국이 분수없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 외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미국이 법률 적견지에서나 남조선에 있는 현 무력의 실패의 견지에서 보나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실천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계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I	전론
II	주요쟁점
III	주요기관장명
IV	주요담화
V	기타

2. 조선 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대미 잠정협정 제의 [1996.02.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낡은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때로부터 2년이 되어온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과 전쟁위험을 막는 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전체제 상태를 고려하여 냉전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듭되는 성의와 인내력을 발휘하여 일련의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등 일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에 조차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의 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 나르고 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최첨단 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대량 투입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 공화국을 일거에 제압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 및 남조선과 함께 삼각군사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북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과 남조선, 미국과 일본 합동군사연습을 거듭해 나섬으로써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정책의 재현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올해에도 연이어 탐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대신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각종 전쟁연습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새해벽두부터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적인 열점의 하나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은 더욱 격화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새 전쟁 발발의 긴박감은 시시각각으로 엄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전상태가 가까스로 유지되고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이 인내성 있는 평화애호 정책과 자제력의 결과이다.

평화와 평화에로 나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선반도의 실태를 두고 남조선에서 안보문제 처리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사태발전 추이를 응당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43년 전에 나온 현 정전체계가 조선반도에서 안전보장 문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되었다.

사실상 냉전의 산물인 낡은 정전체계는 그것이 나온 이후 어느 한 번도 조선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우리와 미국 및 유엔 사이의 특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하여 정전협정 이행의 유일한 감독기구로 되어왔던 군사정전위원회 기능마저 마비된 상태에서 조선반도에서

I	고고
II	중
III	중요
IV	주요
V	기타

안보를 위협하는 현 공백상태는 시급히 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합의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오직 우리와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면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시종 일관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현 조미관계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개된 제안을 내놓는다.

첫째로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 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 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

둘째로 잠정협정을 이행·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공동군사기구가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셋째로 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공공군사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 쪽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이미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맺어지고 북남 공동 군사기구까지 발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이 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도 마련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정전협정의 직접적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유관측들의 이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리적인 발기이다.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평화 애호적인 입장이 반영된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3. 조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 [1996.04.04.]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 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완충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인내성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 밑에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북침적 발기를 당김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하였다.

남조선의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안에 핵무기와 자동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며 천 명 이상의 군사 인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땅크와 각종 구경의 포, 핵무기들을 대량 반입하고 수많은 무장인원들을 끌어들이어 전개하였다.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지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의 경계초소에 대규모 군사 시설물을 공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비무장지 내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하나의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도 정전협정에 규제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더 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표한다.

첫째로 조선인민군 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둘째로 조선인민군 측은 상기 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 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예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은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행동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I	고지대
II	주요 명칭
III	주요 기관명
IV	주요 단화
V	기타

4.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 체결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2002.10.25.]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북남, 조로, 조중, 조일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 졌던 북남철도의 련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세기의 낡은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리는 변화된 현 정세와 우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경제 관리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고 경제특구를 내오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실천적 기여로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지지환영하였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 버리고 평등한 립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특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는 부쉬 행정부의 적대적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코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경수로의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 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비공개 량해록을 이처럼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 조항 중에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애초에 미국이 합의문을 채택할 때 리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만간에 붕괴되리라는 타산을 가지고 거짓 수표 하였는지는 미국만이 알 일이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다. 부쉬 행정부는 우리에게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하였으며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렸다. 부쉬 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 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 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 주었다.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더 알맞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그럴

의무는 더우기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다.

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우리가 별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다 말인가. 결국 우리 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 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해결 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

평양

주체91(2002)년 10월 25일

5.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5.07.22.]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2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래 정전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여 이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조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 정책에 기인된다.

미국은 정전 직후인 1953년 11월 조선에 관한 미국의 최종목표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것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목표는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NSC 170》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미국은 저들이 전 조선을 차지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무한정 유지하면서 조선반도의 분열을 지속시키는 것을 정책화하였다.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안에 체약 쌍방은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에 배치되게 1953년 10월 남조선과 《호상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군 주둔을 고착시키고 그해 12월에는 정치회의 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미국은 1954년 6월 끝내 조선 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서 예견했던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영영 막아버렸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조미 사이의 회답에 남조선도 참가시킬 데 대한 3자회담 제안을 비롯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모두 반대하면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만을 추구하여왔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자회담도 해보았지만 그 것은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거둘 수 없었다.

이렇듯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의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유일하게 랭전시기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랭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더우기 그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 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며 그 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에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I	고려
II	주요 담화
III	주요 기관장명
IV	주요 담화
V	기타

결국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로정으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곧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수립 과정은 반드시 조미 사이의 평화공존과 북남 사이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수립 과정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곧 재개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도 결정적으로 추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 세력들이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주체 94(2005)년 7월 22일

평양

6. 조선 외무성 담화 [2015.10.07.]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선반도에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려는 념원으로부터 유엔총회 제70차 회의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할데 대한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조선반도에서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각종 명목의 크고 작은 군사 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발적인 사건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날로 커가고 있다.

원인 모를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 직전까지 치달아 올랐던 지난 8월 사태의 교훈은 명색만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서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 격화의 악순환 과정은 되풀이되고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 쉽게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 방도는 조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내놓고 꾸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결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지체 없이 응해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도 건설적인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 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 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식 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평화협정체결에 진정으로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우리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주체104(2015)년 10월 7일

평양 (끝)

Consistent is the stand of the DPRK to remove the danger of a war, defuse tension and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Out of its desire to put the earliest possible end to the fragile state of ceasefire that has persisted on the peninsula and build lasting peace-keeping mechanism, the DPRK re-clarified its stand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by a peace treaty at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More than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A but durable peace has not yet settled on the peninsula.

The U.S. and south Korea have staged ceaseless military exercises, big or small, under various codenames in and around the peninsula, increasing the danger of an unpredictable situation to be created by an accidental case.

The lesson taught by the August incident in which the situation reached the brink of a war in a moment due to a minor incident for unknown reason proves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preser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y longer with the present AA that exists in its name only.

The evil cycle of escalation of tension will repeat itself and the situation leading to the brink of a war will be unavoidable as long as the state of armistice persists on the peninsula.

No one can vouch that an all-out war would not break out on the peninsula and in that case that will quickly spill over into a world war.

A fundamental way of putting this serious situation under control is for the DPRK and the U.S. to scrap the outdated AA and sign a new peace treaty as early as possible to build durable peace-keeping mechanism on the peninsul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A we have made fair and aboveboard and realistic proposals and initiatives to replace the AA by a peace treaty and have made strenuous and sincere efforts to put them into practice.

The U.S. has to part with its anachronistic policy aimed to keep the armistice system and respond to the DPRK's just proposal for signing a peace treaty.

In fact, it is the U.S. which holds OPECON of the south Korean army and it is also the U.S. which manages the AA.

If the U.S. boldly makes a policy switchover, we have the willingness to respond to constructive dialogue and then security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will witness dramatic improvement and this will help the U.S. clear its security concerns.

We have already sent through an official channel a message urging the U.S. side to respond to the proposal for signing a peace treaty with sincerity.

We hope that the U.S. will prudently study our proposal for the peace treaty and affirmatively respond to it.

Source: KCNA.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동지의 답화 [2018.05.16.]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역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두 차례나 접견해주시었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대통령이 역사적 뿌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들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례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put an end to the unpleasant history of the DPRK-U.S. relations and met Pompeo, U.S. secretary of state, for two times during his visit to our country and took very important and broad-minded steps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In response to the noble intention of Chairman Kim Jong Un, President Trump stated his position for terminating the historically deep-rooted hostility and improv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 appreciated the position positively with an expectation that upcoming DPRK-U.S. summit would be a big step forward for catalyzing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great future.

But now prior to the DPRK-U.S. summit, unbridled remarks provoking the other side of dialogue are recklessly made in the U.S. and I am totally disappointed as these constitute extremely unjust behavior.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 of State including Bolton,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er, are letting loose the assertions of so-called Libya mode of nuclear abandonment,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otal decommissioning of nuclear weapons, missiles, biochemical weapons". etc, while talking about formula of "abandoning nuclear weapons first, compensating afterwards".

This is not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address the issue through dialogue. It is essentially a manifestation of awfully sinister move to impose on our dignified state the destiny of Libya or Iraq which had been collapsed due to yielding the whole of their countries to big powers.

I cannot suppress indignation at such moves of the U.S. , and harbor doubt about the U.S. sincerity for improved DPRK-U.S. relations through sound dialogue and negotiations.

World knows too well that our country is neither Libya nor Iraq which have met miserable fate.

It is absolutely absurd to dare compare the DPRK, a nuclear weapon state, to Libya which had been at the initial stage of nuclear development.

We shed light on the quality of Bolton already in the past, and we do not hide our feeling of repugnance towards him.

If the Trump administration fails to recall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when the DPRK-U.S. talks had to undergo twists and setbacks owing to the likes of Bolton and turns its ear to the advice of quasi-"patriots" who insist on Libya mode and the like, prospects of upcoming DPRK-U.S. summit and overall DPRK-U.S. relations will be crystal clear.

I	서론
II	주요 경과
III	주요 관점
IV	주요 담화
V	기타

We have already stated our intention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de clear on several occasions that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is to put an end to anti-DPRK hostile policy and nuclear threats and blackmail of the United States.

But now, the U.S. is miscalculating the magnanimity and broad-minded initiatives of the DPRK as signs of weakness and trying to embellish and advertise as if these are the product of its sanctions and pressure.

The U.S. is trumpeting as if it would offer economic compensation and benefit in case we abandon nuke. But we have never had any expectation of U.S. support in carrying out our economic construction and will not at all make such a deal in future, either.

It is a ridiculous comedy to se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claiming to take a different road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still clings to the outdated policy on the DPRK - a policy pursu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at the time when the DPRK was at the stage of nuclear development.

If President Trump follows in the footsteps of his predecessors, he will be recorded as more tragic and unsuccessful president than his predecessors, far from his initial ambition to make unprecedented success.

If the Trump administration takes an approach to the DPRK-U.S. summit with sincerity for improved DPRK-U.S. relations, it will receive a deserved response from us. However, if the U.S. is trying to

drive us into a corner to force our unilateral nuclear abandonment, we will no longer be interested in such dialogue and cannot but reconsider our proceeding to the DPRK-U.S. summit.

I
최고 지도자
김정은

II
주요
정책
남북
관계
김정은

III
주요
기관
김정은

IV
주요
담화

V
기타

Source: KCNA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최선희 부상 담화

[2018.05.24.]

조선어

21일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 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흐름과 정세완화 기류라도 어느 정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다.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에 이어 이번에 또 부대통령 펜스가 우리가 리비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력설하였는데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

그런데 이 엄연한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펜스는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불러올 무서운 후과에 대해 숙고했어야 하였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고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 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 24일

평양(끝)

At an interview with Fox News on May 21, U.S. Vice-President Pence made unbridled and impudent remarks that north Korea might end like Libya, military option for north Korea never came off the table, the U.S. nee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so on.

As a person involved in the U.S. affairs, I cannot suppress my surprise at such ignorant and stupid remarks gushing out from the mouth of the U.S. vice-president.

If he is vice-president of "single superpower" as is in name, it will be proper for him to know even a little bit about the current state of global affairs and to sense to a certain degree the trends in dialogue and the climate of détente.

We could surmise more than enough what a political dummy he is as he is trying to compare the DPRK, a nuclear weapon state, to Libya that had simply installed a few items of equipment and fiddled around with them.

Soon after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er Bolton made the reckless remarks, Vice-President Pence has again spat out nonsense that the DPRK would follow in Libya's footsteps. It is to be underlined, however, that in order not to follow in Libya's footsteps, we paid a heavy price to build up our powerful and reliable strength that can defend ourselves and safeguard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In view of the remarks of the U.S. high-ranking politicians who have not yet woken up to this stark reality and compare the DPRK to Libya that met a tragic fate, I come to think that they know too little about us.

To borrow their words, we can also make the U.S. taste an appalling tragedy it has neither experienced nor even imagined up to now.

Before making such reckless threatening remarks without knowing exactly who he is facing, Pence should have seriously considered the terrible consequences of his words.

It is the U.S. who has asked for dialogue, but now it is misleading the public opinion as if we have invited them to sit with us. I only wonder what is the ulterior motive behind its move and what is it the U.S. has calculated to gain from that.

We will neither beg the U.S. for dialogue nor take the trouble to persuade them if they do not want to sit together with us.

Whether the U.S. will meet us at a meeting room or encounter us at nuclear-to-nuclear showdown is entirely dependent upon the decision and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In case the U.S. offends against our goodwill and clings to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I will put forward a suggestion to our supreme leadership for reconsidering the DPRK-U.S. summit.

Source: KCNA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부상 담화 발표 [2018.05.25.]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 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있던 조미수뇌 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립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져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수뇌 상봉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립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적대관계의 현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뻔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 취소 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I	고지
II	주요 담화
III	주요 기관장명
IV	주요 담화
V	기타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The historic summit is now high on the agenda between the DPRK and the U.S. , and the preparations for it are being pushed forward at the final stage amid the remarkably great concern of the world.

The sincere pursuit and active efforts made by the DPRK to end the relations of hostility and distrust that have lasted for decades and build a new landmark for the improvement of the DPRK-U.S. relations have commanded unanimous sympathy and support from the public at home and abroad.

But suddenl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rump made public his official stand on May 24 to cancel the DPRK-U.S. summit that had already been made a fait accompli.

Explaining the reason for it, he said that the statement made by Vice Foreign Minister of the DPRK Choe Son Hui carried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an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hold the meeting at present, a precious one that has long been planned.

I would like to take this expression of his stand on the DPRK-U.S. summit as a decision not consistent with the desire of humankind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world, to say nothing of those in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referred to by President Trump, it is just a reaction to the unbridled remarks made by the U.S. side which has long pressed the DPRK unilaterally to

scrap nuclear program ahead of the DPRK-U.S. summit.

The inglorious situation today is a vivid expression of the severity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hostile DPRK-U.S. relations of long historical roots and the urgent necessity for the summit meet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ties.

As far as the historic DPRK-U.S. summit is concerned, we have inwardly highly appreciated President Trump for having made the bold decision, which any other U.S. presidents dared not, and made efforts for such a crucial event as the summit.

His sudden and unilateral announcement to cancel the summit is something unexpected to us and we can not but feel great regret for it.

It is hard to guess the reasons. It could be that he lacked the will for the summit or he might not have felt confident. But for our part, we have exerted sincere efforts, raising hope that the historic DPRK-U.S. summit meeting and talks themselves would mark a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e improve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as the first step forward to settling the issue through dialogue.

We even inwardly hoped that what is called "Trump formula" would help clear both sides of their worries and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our side and would be a wise way of substantial effect for settling the issue.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has also exerted all efforts for the preparations for the summit, saying that the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could help make a good start.

The U.S. side's unilateral announcement of the cancellation of the summit makes us think over if we were truly right to have made efforts for it and to have opted for the new path.

But we remain unchanged in our goal and will to do everything we could for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kind, and we, broad-minded and open all the time, have the willingness to offer the U.S. side time and opportunity.

The first meeting would not solve all, but solving even one at a time in a phased way would make the relations get better rather than making them get worse. The U.S. should ponder over it.

We would like to make known to the U.S. side once again that we have the intent to sit with the U.S. side to solve problem regardless of ways at any time.

Source: KCNA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담화 [2018.07.07.]

조선어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 쏠리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우리 측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 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들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회답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위임에 따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답을 통하여 트럼프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답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한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었던 문제이다.

미국 측이 회답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다.

I	최고 지도자 회담
II	주요 논점
III	주요 기관 설명
IV	주요 담화
V	기타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한두 개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총 한 자루 폐기하지 않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 개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취한 핵 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폐기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조미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룩된 것도 바로 트럼프대통령 자신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쌍방이 수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쫓아내고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 되었던 세기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은 무의미해 지게 될 것이다.

이번 첫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면서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을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것 같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여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조미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 나왔던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핵화 실현에 부합되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게 시작된 쌍무관계 발전의 기류가 혼탕될 수 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조미 량국에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에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미국은 수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주체107(2018)년 7월 7일

평양(끝)

International society has focused its expectation and attention on the DPRK-U.S. high-level talk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the DPRK-U.S. summit after the first historic summit meeting and talks were hel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We expected that the U.S. side would bring itself with a constructive proposal which would help build up trust true to the spirit of the DPRK-U.S. summit meeting and talks. We, on our part, were also thinking of doing something which corresponds with it.

It was, however, so regretful to mention what the U.S. side had shown in its attitude and stand at the first DPRK-U.S. high-level talks held on 6 and 7 July.

The DPRK side, during the talks, put forward the constructive proposals to seek a balanced implementation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Joint Statement out of its firm willingness to remain faithful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pirit and agreed points of the DPRK-U.S. summit meeting and talks.

These include taking wide-ranging proactive steps of simultaneous actions in a respective manner such as realizing multilateral exchanges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aking public a declaration on the end of war first on the occasion of the 65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smantling the test ground of high thrust engine to make a physical verification of the

suspension of ICBM production as part of denuclearization steps and making an earliest start of the working-level talks for recovering POW/MIA remains.

Before the talks, Kim Yong Chol, vice-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o is also a chief delegate from our side to the talks, was authorized to convey with a due respect to U.S. State Secretary Pompeo a personal letter sent from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Kim Jong Un to President Trump.

Chairman Kim Jong Un expressed his expectation and conviction that good personal relations forged with President Trump and his sentiments of good faith built towards the latter at the Singapore summit and talks would be further consolidated through the process of future dialogues such as high-level talks this time.

But, the U.S. side came up only with its unilateral and gangster-like demand for denuclearization just calling for CVID,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all of which run counter to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ummit meeting and talks.

The U.S. side never mentione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essential for defusing tension and preventing a war. It took the position that it would even backtrack on the issue it had agreed on to end the status of war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excuses.

As for the issue of announc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t an

early date, it is the first process of defusing tension and establishing a las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it constitutes a first factor in creating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is issue was also stipulated in Panmunjom Declaration as a historical task to terminate the war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ontinues for nearly 70 years. President Trump, too, was more enthusiastic about this issue at the DPRK-U.S. summit talks.

The issues the U.S. side insisted on at the talks are all roots of troubles, which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lso had insisted on to disrupt the dialogue processes, stoke the distrust and increase the danger of war.

The U.S. side, during the talks, made a great publicity about suspension of one or two joint military exercises. But suspension of one action called exercises is a highly reversible step which can be resumed anytime at any moment as all of its military force remains intact in its previously-held positions without scraping even a rifle. This is incomparable with the irreversible step taken by the DPRK to explode and dismantle the nuclear test ground.

The results of the talks can't but be so apprehensive.

We thought that the U.S. side would come with a constructive proposal which accords with the spirit of the DPRK-U.S. summit meeting and talks. But expectation and hope of ours were so naive as to be foolish.

Conventional ways can never create new things. Treading on trite stereotype of all the failure would invite another failure only.

Valuable agreement was reached in such a shor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alks first ever in the history of the DPRK-U.S. relation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himself said he would move towards resolving the DPRK-U.S. relations and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new way.

If both sides at the working level reneged on the new way agreed at the summit and returned to the old way, the epoch-making Singapore summit would be meaningless, which was held thanks to the determinations and wills of the two top leaders to open a new future for the interests of the two peoples and peace and security of the world.

The first DPRK-U.S. high-level talks this time brought us in a dangerous situation where we may be shaken in our unshakable will for denuclearization, rather than consolidating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n the last few months, we displayed maximum patience and watched the U.S. while initiating good-will steps as many as we can.

But, it seems that the U.S. misunderstood our goodwill and patience.

The U.S. is fatally mistaken if it went to the extent of regarding that the DPRK would be compelled to accept, out of its patience, the demands reflecting its gangster-like mindset.

A shorter way to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remove deep-rooted mistrust and build up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For this, both sides should be bold enough to be free

from old ways which had only recorded failures and resolve the problem in a fresh manner which is never bound by the existing ways. A shortcut to it is also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and follow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actions in resolving what is feasible one by one while giving priority to creating trust.

But, if the U.S. , being captivated in a fidget, tries to force upon us the old ways claim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is will get us nowhere.

If the objective situation does not stand in favor of the denuclearization against our wills, this would rather cast a heavy cloud over the atmosphere of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which had shown its good movement in its beginning.

Should the headwind begin to blow, it would cause a great disappointment not only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spiring after global peace and security but also to both the DPRK and the U.S. If so, this will finally make each side seek for another choice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is will not result into yet another tragedy.

We still cherish our good faith in President Trump.

The U.S. should make a serious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toleration of the headwind against the wills of the two top leaders would meet the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world people as well as the interests of its country.

Source: KCNA



V

기 타

1.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1988]

조선어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정지된 때로부터 35년이 지나갔다. 정전이 이룩되었어도 이 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등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전쟁 재발의 위험성을 띤 위기일발의 정세가 한두 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35권, 344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성숙된 문제이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기본 방도이며 나아가서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 담보이다.

1) 조선정전협정의 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승리입니다. 정전은 비록 조선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첫걸음으로 되며 긴장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첫 모범으로 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저작집>8권, 14페이지)

정전협정의 체결로 조선에서는 3년여에 걸쳐 울리던 전쟁의 총포소리가 멎고 적대적 군사행동이 정지되었다.

미제는 3년 동안의 조선전쟁 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 4년 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당하였다.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우려던 적들의 어리석은 계획은 쓰디쓴 패배로 끝장났다. 미제는 하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에서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쓰고 정전협정에 수포하였던 패전장군 클라크는 자기가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이 패배가 얼마나 뼈에 사무친 것이었던지 1983년에 정전협정조인 30돐을 앞두고 진행한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또다시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패배를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된다.

조선정전협정을 단순한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만을 규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난날의 정전은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만을 규제하였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체결을 놓고 교전일방의 승리와 그 상대방의 패배에 대하여 말하기가 곤란하였다. 오직 전쟁의 승패가 항복서에 조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선정전협정을 종래의 정전에 관한 개념으로 고찰하여서는 그 본질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조선정전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정전협정은 이것을 성문화한 역사적 증거이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미제는 공화국 북반부를 일격에 집어삼키려던 제놈들의 야망이 망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혁명적 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또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부터 되며 긴장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모범으로 된다.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규제하였다(정전협정 60항).

이러한 규정은 조선정전협정이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를 규제한

것이 아니며 어느 때든지 다시금 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적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래의 국제법 규범에서 인정되었던 정전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을 보통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인 정지로 간주하였으며 교전쌍방은 임의의 시각에 적대적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1907년 육전 법규와 관습에 관한 제4 헤그협약 부록 제5장 <정전에 관하여> 제36조에는 정전은 교전국들의 호상합의에 의한 군사행동의 정지라는 것을 지적하고 만일 정전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교전국들은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이전의 전쟁들에서 있었던 정전은 적대적 군사행동의 매우 불안정한 정지였다. 교전 쌍방은 정전기간을 역량을 재수습, 재편성 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 문제가 최종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규제하였다.

우선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과 남으로 각각 2킬로미터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는 하나의 완충 지대로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12항부터 18항까지는 평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였다.

정화의 구체적 조치는 하늘, 땅, 바다의 전 전선에 걸쳐 적대적 군사 행동을 정지하며 모든 군사인원과 군사장비들을 비무장지대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72시간 안으로 철거시키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안과 연해 도서들에 있는 쌍방의 모든 군사인원과 장비들은 정전 협정체결 후 10일 이내에 철거시키며 비무장지대 안의 위험물은 45일 이내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 경외로부터 새로 증원하는 군사 인원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정전협정 13항 ㄷ목)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장비들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정전협정 13항 ㄹ목). 만일 정전기간에 파손 및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들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능과 유형의 것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정전협정에 규정된 출입항을 통하여 교체하기로 되어있다.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쌍방 군사인원과 무장장비들의 교체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정형을 감시 및 시찰하며(정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에 대한 감독)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시찰소조를 조직하여 출입항들에 주재시키기로 되었다.

정전협정에는 쌍방 무장 력량이 상대방의 군사통제 밑에 있는 육지, 바다, 공중을 존중하며 정전협정조항들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전협정에 조인한 쌍방 군사령관과 그 후임사령관들이 져야 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다.

조선정전협정은 이와 같이 정화 및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며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의 정전협정으로 되었다.

조선정전은 또한 조선반도에서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면서 노린 목적은 단순히 공화국 북반부만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자는 데만 있지 않았다. 놈들은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튼튼히 닦으려는 데도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미제의 이 기도는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일단 포성을 멎게 됨으로써 산산조각이 났다. 조선전쟁은 힘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굴복시키는데 습관 된 미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 인민들도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주체를 세워 용감히 싸운다면 능히 미제를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조선인민의 승리와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처럼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긴장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미제로 하여금 허장성세를 뽐낼 것이 아니라 회담장에 나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은 국제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하여 지난날의 정전들에서 순수 군사행동의 측면만을 규제하였던 것과는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

조선정전협정이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우리 시대의 국제적 역량관계와 자주시대의 기본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정전담판에서 우리 측은 적들의 간교한 술책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나아갔다. 정전담판에 대한 적들의 태도와

입장은 정전은 일시적인 휴전으로 하고 역량을 재수습해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군사적 공세를 들이대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정전담판에서 부당한 요구를 들고 나왔다가 우리 측에 의해 여지없이 논박당할 때마다 담판 장에서 콩무니를 빼고 이른바 <하기공세>, <추기공세> 또는 그 무슨 <신공세> 따위의 군사적 공세를 들이대었다.

그러나 군사적 공세도 담판에서의 외교적 교활성도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적들은 우리 측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가 정전협정이다 정전을 단순한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로 규정하지 못하고 조선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정전으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목적인 정전으로 규제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그들이 조선 문제의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에 그 무슨 관심이 있었거나 국제법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그 어떤 욕망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담판을 우리에게 먼저 제기하고 담판 장에 흰기를 들고 나온 것은 조선전쟁에서 만신창이 된 제 놈들의 신세를 어떻게 하나 건져 보려는 심산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선에서의 군사적 패배를 <외교적 승리>로 메꾸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제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 어떤 <승리>를 바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들에게는 더 큰 패배가 안겨질 뿐이었다.

적들은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서야 정전협정에 대한 우리 측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정전협정의 매 조항에는 미제의 간교한 군사적 및 외교적 공세를

짓부신 우리의 진지한 노력, 견결한 투쟁 성과가 아로새겨져 있다.

조선정전협정은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자주력량, 신흥세력의 요구에 따라 국제법의 규범들이 제정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미제의 정전협정위반책동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 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 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김일성저작집> 24권, 141페이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마자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20분 후인 1953년 7월 27일 22시 20분경에 전선 동부에서 우리 측 지역을 향하여 기관총 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정전 후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비무장지대와 우리 측 군사통제 지역에 대하여 총포사격과 무장공격을 계속 감행하였다.

1967년 7월 16일에는 전선 서부에서 37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이 중기관총의 엄호 하에 수천발의 총 사격을 가하면서 무려 13시간 30분 동안이나 우리 측에 무장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975년 6월에는 임진강 하류 일대에서 그 맞은편 우리 측 군사통제지역에서 일하는 농장원들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향하여 1, 000여발의 12. 7미리기관총을 쏘대었다. 또한 적들은 1981년 4월 21일에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810호 일대에서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측 민사행정경찰 성원들을 향하여 무려 2만 3,000여발의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총포사격사건은 이루 헤어릴 수 없이 많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우심해지고 있다.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정전 후 1954년까지 수백 건 이었다면 1961년에는 2,500여건, 1968년에는 1만여 건, 1975년부터는 매해 2만 수천 건에 달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0년간에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감행한 적들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무려 37만 2,000여 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 1969년 4월 대형 간첩비행기<이씨-121>사건, 1976년 8월 <판문점사건> 등은 미제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였으며 난폭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였다.

미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쌍방 통제하의 육지, 공중, 해상을 존중할데 대한 정전협정의 규정을 유린한 비법적인 행위이다.

미제의 정전협정 위반책동은 특히 정전협정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거나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의무를 제멋대로 포기한데서 더욱 엄중하게 드러났다.

미제는 정전협정 60항에 예견된 정치회의 소집을 고의적으로 태공 하면서 이 회의 예비회담을 파탄시켰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 추종국가 군대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 문제를 조선사람 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토의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어떻게 하나 정치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에 예비회담 장소에서 제멋대로 뺑소니쳤다. 이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보다 앞서 1953년 8월 8일에는 남조선괴뢰도당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을 영구강점 할 음흉한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예견된 정치회의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미제침략군을 <공약>에 의해 남조선에 그냥 놔두겠다는 것이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도당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명백히 정전협정에 대한 유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정전협정의 중요한 일부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성명>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 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였다.

놈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형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었다. 미제의 이러한 행위는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급해 맞은 미제는 중립국시찰소조 성원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숙소에 폭탄을 던지며 지어 그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1956년 6월에 남조선 출입항들에서 중립국시찰소조 성원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57년 6월 21일에는 정전협정 13항 ㄱ목을 폐기한다는 것을 제멋대로 <성명>하였다. 당시 남조선 강점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램니씨는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노력한 결과 정전협정 13항 ㄱ목을 폐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신형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떠벌였다.

이것은 미제의 정전협정 파기책동이 정전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정전협정 13항 ㄱ목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미제의 파렴치한 행동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보충 및 폐기는 쌍방 사령관들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진행되기로 되어있다. 그런 것만큼 미제가 정전협정 13항 ㄱ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비법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남조선에다 신형무기들을 마음대로 끌어들이려는 속심을 드러내 놓은 것이었다.

사실상 미제는 이후부터 남조선에서 무력증강 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미제는 지금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포탄, 핵 지뢰 등을 배치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비-52>전략폭격기, <에프-16>전투폭격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핵전쟁수단들을 끌어들이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배척받았던 중성자무기까지 반입하였다. 이리하여 지금 남조선에는 100평방키로메터당 1개 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집중되어있다는 <나토>지역보다 그 배비밀도가 4배나 높은 것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80년대 힘의 대결의 시험장>, <세계전략의 제1선> 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공약상 의무>에 충실하겠노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다. 미제는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른바 <호상방위조약>에 근거한 <공약상 의무>만을 외워대면서 남조선에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책동을 더욱더 강화하며 더 많은 군사<원조>를 주고 있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함께 막대한 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4만여 명의 침략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는 것 외에도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미명 밑에 숀한 무력을 해마다 끌어들이어서 불안정을 일삼고 있다.

놈들이 해마다 벌려놓는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는 막대한 병력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남조선 주변에 배치된 미제침략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의 침략무력도 끌어들여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동원시키고 있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동원인원	기간
1976	4만 6, 000명 그중 미군 6, 000명	10일
1977	8만 7, 000명 그중 미군 1만 3, 000명	15일
1978	11만 8, 000명 그중 미군 4만 5, 000명	17일
1979	14만여 명 그중 미군 5만 6, 000명	18일
1980	16만 명 그중 미군 5만 4, 000명	50일
1981	16만 1, 500명 그중 미군 6만 1, 500명	69일
1982	16만 9, 000명 그중 미군 6만 1, 600명	73일
1983	19만 1, 700명 그중 미군 7만 3, 700명	75일
1984	20만 7, 500명 그중 미군 6만 명	76일
1985	20여만 명	2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1986	20여만 명 그중 미군 6만여 명	2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1987	20여만 명	2월 19일부터 5월 초순까지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연습이다. 이것은 미제가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나토>군사연습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미제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 시험 전쟁이다.

<템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 경외로부터 새로운 작전무기와 군사인원들을 들여오지 말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13항 ㄷ, ㄹ목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마구 짓밟아버리면서 조선 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고 오므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와 정전협정조항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 문건으로는 도저히 역할 할 수 없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자 항구적 평화에 대한 담보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29권 292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문건으로서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전국 사이의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저지를 규제한 것이지 전쟁상태의 법적종결을 규제하지는 않았다. 정전으로서는 교전국 사이의 전쟁상태가 가셔지고 평화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없다. 조선정전협정이 조선 문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코 교전 쌍방 사이의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의 역사는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어야 교전국들 사이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교전국 사이의 국가적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서는 그에 따르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교전국 사이의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지었다.

조선전쟁과 관련하여서도 응당 교전국사이에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5년이 지났어도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지 정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은 반드시 교전국사이에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제하게 되며 교전국들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의 공고성을 보장하게 된다.

조선에서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전쌍방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그 공고성을 담보하는 그 어떤 법적 의무도 지니지 않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기회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격화는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가 엄중한 지경에까지 긴장되어 가고 있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격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의 하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위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는 응당한 논리적 귀결이며 역사발전과 정세발전의 요구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정전협정 그 자체가 낡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결된 지 오랜 낡아빠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30권, 653페이지)

1953년 7월에 작성조인된 정전협정의 규정 가운데는 35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상할데 대하여>>라는 우리 측 결의안이 채택된 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정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의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시찰소조가 추방된 후 정전협정 13항 ㄷ, ㄹ목의 집행에 대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독통제적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실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미제의 군사시설 구축책동과 각종 도발행동이 강화됨으로써 비무장지대가 쌍방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의의도 크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사실들은 정전협정의 규정들이 낡았으며 미제의 새 전쟁준비 및 도발책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전협정을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법적 기초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현대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나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의 견지에서 보나 그리고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와 염원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하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로 되어있다.

3)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인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논리적이다.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30권, 433페이지)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교전일방이며 평화협정체결의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 군대에게 <유엔군>의 철갑모를 씌우고 유엔기발을 쥐여서 그들을 조선전선에 내몰았으나 이것은 철두철미 날조된 비법적인 유엔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였다. <유엔군>은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미국방성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미제의 침략군이었다.

그것은 우선 <유엔군>조직에 관한 유엔의 <결정>이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현장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날치기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미제는 면밀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유엔을 이용하여 제놈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조선전쟁을 <국제화>하는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1950년 6월 25일, 27일, 7월 7일 연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벌려놓고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침략자>라느니, 미군은 <경찰적 행동>을 하여야 한다느니,

미국이 통수권을 틀어쥐는 <유엔군>을 조작하여야 한다는지 하는 <결정>을 꾸며내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짜놓은 각본에 근거한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정>들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무력으로 조선내정에 간섭한 것은 유엔의 <결정>이 채택되기 전부터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유엔의 <결정>에 근거하여 그 무슨 <경찰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한 미제는 유엔<결정>을 조선대표의 참가 없이 안보이사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유엔헌장 제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28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 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 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엔<결정>의 비법성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일치 가결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들의 참가 없이 그들의 찬동이 없이 <결정>이 날치기로 <채택>되었다는데 있다.

당시 소련은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의 원칙과 유엔 헌장의 기본요구에 맞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사업 전반을 반대하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본 다마가와 백과대사전(세계역사편)에서는 <<유엔 안보이사회는 소련이 회의를 보이콧하여 결석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군의 조선 출병을 결의하였다. »라고 썼다.

19세기 70년대 아일랜드 농민들이 악질지주들에 대한 집단적 반대배격 운동을 벌렸는데 그 첫 투쟁 대상이 영국대위 보이코트였다. 이때부터 보이코트란 말은 <반대배격>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미제가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조선문제>를 강압 통과시킬 당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이 토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기권이 아니라 반대 의사표시이다.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미제의 부당한 책동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오로지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대만은 중국영토의 한 부분이다.

<두개의 중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전 중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에서 이전 중국의석을 그대로 계승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원칙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중국인민을 전혀 대표할 수 없는 장개석 도당을 유엔의 중국 의석에 눌러 앉혀놓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합법적 의석 회복을 각방으로 집요하게 반대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부당성은 그들이 펴 늦게나마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한테서 여실히 증시되었다. 1978년 12월에 발표된 중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언명하고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 벌써 미국이 취했어야 할 입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지위는 창건 당시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 조건에서 미제가 유엔안보 이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의석 회복 문제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부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명백히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온갖 비법성에 기초하여 날조된 유엔<결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유엔군>은 실제적인 유엔군이 아니라 미제 침략군과 미제의 총알받이인 추종국가 군대였다.

사실 조선전선에 기여든 <유엔군>에 대하여 유엔은 아무런 통제도 한 적이 없으며 또 통제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유엔군>의 작전, 지휘, 통솔 및 그에 대한 보급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군사적 통제와 지휘는 미제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한때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뒤집어쓰고 날치던 패전 장군 맥아더는 1951년 미국 상원에서 증원하면서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맹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

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실토하였다. 그리고 유엔본부 대변인까지도 《남조선에 있는 미군 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만 미군과 미국의 15개 추종국가군대에게 <유엔군>모자를 씌워놓았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전 후의 사태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더욱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전 후 <유엔군> 산하에 있었다는 것은 미군뿐이고 다른 나라 군대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유엔군>이자 곧 미군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드러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어 미제침략군이 쓰고 있는 <유엔군>이란 이름을 벗겨버림으로써 미국이 조선전쟁의 일방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졌다.

미제는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가 일정에 올라 대세가 제 놈들에게 불리하게 전변되게 되자 그 이전까지 남조선 주둔 미군이 <유엔군>에 속한 듯이 떠들던 논조를 집어치우고 <유엔군>과 미군이 다르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놈들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도 남조선 주둔 미군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자주시대의 흐름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허튼소리를 쫓았다.

미국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논리적 견지에서 보나 조선전쟁의 일방이며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그것을 회피하여서는 안 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974년 3월에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편지를 미국 국회에 보냈다. 편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쌍방회담에서 토의할 평화협정의 기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펍 늦어서야 쌍방회담이 아니라 3자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

하였다. 1976년 8월에 당시 미국무장관이 3자회담에 대해서 들고 나왔다. 그 후 1978년 3월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과의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 대표들 사이의 접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 하였으며, 1979년 7월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 사이의 <고위당국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1983년 9월에 미국은 제3국을 통하여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만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담에 남조선도 동등하게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대통령 레간자신도 1983년 11월에 남조선<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3자회담에 미국이 기꺼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 측이 표명한 바와 같은 공식적 입장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 문제를 신중히 토의하고 3자회담을 하루빨리 열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미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 선포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안이 담겨져 있다.

1984년 1월 하순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1950년대의 전쟁상태가 완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며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여 조선전쟁을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본 화근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인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태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커다란 장애로 된다. 조선에서 전쟁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정세가 긴장되던 끝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것은 미국인민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에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장애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격화의 근원이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의 분열, 조선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 되었으며 또 이 분열과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 앉아 조선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전후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점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초긴장상태를 여러 번 조성하였으며 조선에다 전쟁의 검은 구름을 항시적으로 몰아오고 있다.

일제 패망 후 40여 년의 역사는 미군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 있는 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하나인 것만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각종 비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다. 이러한 간섭현상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결코 조선반도의 정세가 안정될 수 없다.

또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도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정책 실현에서 외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에서 비행기, 대포, 함선 등이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하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기한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이와 같이 그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조선인민은 물론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만일 미국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자회담 제안과 평화협정 제안에 선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체면을 손상시킴이 없이 조선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될 것이다.

2. UN 특별위원회 회의 북측 대표 연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4.03.30.]

<전략> 우리는 유엔이 유엔현장에 배치되는 비법적인 기구를 해체하는 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50여 년 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현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구로서 실제상 미군사령부이며 오직 미국의 전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침략도구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4.04.05, 6면)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3월 30일 유엔현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강권과 일방주의로 말미암아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강자에 의하여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이 ‘판결’되고 국제적 기준이 제멋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는 일방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현 국제정세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유엔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권과 일방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된다.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총회의 권능을 높이고 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리사회의 결의들을 검토하고 해당한 권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면 강권과 일방주의를 막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안전 보장 리사회 개혁은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발전도상 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과 안전 보장 리사회 활동의 결백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이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비법적인 기구를 해체하는 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50여 년 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구로서 실제상 미군사령부이며 오직 미국의 전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침략도구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조선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 전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2018.01.14.]

조선어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오는 첫 아침 절세의 위인께서 펼쳐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뜻 깊은 올해의 장엄한 통일 대진군이 시작되었다.

열화 같은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 넘치고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나라의 통일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지펴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며 대결과 적대의 동토대우에 올려 퍼진 화해와 단합의 력사적 선언이다.

견잡을 수 없이 몰려드는 핵전쟁의 화염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던 조선반도의 그토록 침예한 정세가 새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날로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북남관계가 단 며칠사이에 그 면모를 달리하고 있는 오늘의 놀라운 현실은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어주신 조국통일의 리정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견지명 한 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단합 되어 일떠서면 당할 자 없다는 필승의 신심 드높이 새해 정초에 내짚은 좋은 첫걸음을 자주통일 위업수행의 획기적 전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올해는 우리 인민이 삶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

뿔을 경사롭게 맞이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이다.

북과 남은 한 피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민족적 대사들을 다 같이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힘 있게 떨쳐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사로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존엄과 강국의 지위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여 만방에 떨쳐지고 빛나게 된다.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며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루속히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겨레 모두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반목질시하고 대결하는 것은 더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통일되고 강성 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자!

온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열풍으로 들끓게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궤도를 따라 북남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 나아가자!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외부에 들고 다니며 누구의 도움을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슬기로운 조선민족다운 높은 자존심과 담대한 배짱으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우리 민족이 틀어쥔 핵 보검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침략과 핵전쟁 도발책동을 제압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과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주체조선의 핵 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 하겠다고 돌아치는 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민족의 핵, 정의의 핵 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 것을 북남관계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동북아시아에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 지위를 지탱해보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에 위험한 화염을 피우며 재앙을 몰아오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반전평화옹호투쟁에 총결기하자!

내외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자!

전 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밑부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 위에 온 세상이 보란 듯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3. 북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 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역적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된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반통일 역적 무리들이 북남관계에 끼친 파국적 후과를 시급히 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힘 있게 열어나가려는 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열망이며 일치한 의지이다.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온 겨레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자!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 지 일흔 둘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즐기차게 벌려 민족 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 민족적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해내외의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여 통일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동족 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민족적 화해를 실현하고 통일 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현실적 요구이다.

온 겨레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겨레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다.

4.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지금 북남 사이에는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합의 리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 있다.

오늘의 의미 있는 출발을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제2의 6.15시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와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주춤하거나 멈춤 없이 오늘의 기세대로 계속 전진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리념에 충실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 투철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리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면 초래될 것은 북남관계 파탄과 전쟁밖에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 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자!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의 리익을 남에게 내맡기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견지하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북남관계에 개선의 기류가 흐르는 지금 내외 반통일 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간섭과 방해의 틈을 노리며 그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온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부강번영할 통일된 삼천리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는 자주통일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가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으며 승리의 기치가 진두에 펴날 휘날리고 있다.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품어 안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으며 위대한 향도 따라 나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을 자 그 어디도 없다.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래일을 굳게 믿고 뜻 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주체107(2018)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끝)

They called upon all Koreans with the strong will to make this auspicious year an eventful year noteworthy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by pooling the efforts of our nation as follows:

1. Let us turn out as one in the nationwide drive to improve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make a breakthrough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true to the noble patriotic intention of the peerlessly great man!

It is the steadfast will of all Koreans who have turned out for implementing the noble intention of the peerlessly great man to bring great changes to the north-south relations as early as possible and make a new history of independent reunification.

Let us rapidly improve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pave a wide avenue to rosy future of the nation which will be reunified, strong and prosperous!

Let us make the whole land of Korea seethe with hot wind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and courageously advance the north-south relations along the way indicated by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Let us decisively smash all sophisms and attempts to slander the nuclear treasured sword of the nation and justice and brand it as a hurdle in the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north-south relations!

2. Let us wage an energetic drive to defus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create a peaceful climate on the Korean Peninsula!

Let all Koreans at home and abroad turn out to decisively oppose and reject all hostile acts and war moves aggravating the situation and wrecking peace!

Let all Koreans become shields and strong castle walls in the struggle to defend security of the nation and peace on this land!

Let all Koreans rise up in the peace-keeping struggle against war to baffle the reckless nuclear war moves of the U.S. which brings disaster to this land, setting dangerous flames!

3. Let us promote contact, travel,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a wide scale and actively create a climate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Let us promote contact, travel,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a wide scale to remove mutual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and make all the fellow countrymen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role as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reunification!

Let the people of all strata in the north and the south bring down the barrier of national division and share kindred feelings by freely traveling by air and sea and overland and actively promote the trend of reconciliation and unity.

Let's reenergize inter-political party, inter-strata and inter-sector contacts and dialogues and activate cooperation and exchange at

home and abroad to stir up the climate of reunification.

Let all compatriots wage a more vigorous struggle to get rid of anachronistic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harassing the fresh tide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and prevent hostile actions!

We will courageously smash all challenges going against the nation's desire for reunification, hold with splendor joint events of the nation involving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and personages at home and abroad on the anniversaries of north-south declarations, the 7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other occasions this year and thus demonstrate the nation's will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to the world.

4. Let us smash the moves of the separatist forces at home and abroad and dynamically usher in a fresh phase of national reunification, holding aloft the banner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By Our Nation Itself!

Let all the fellow countrymen at home and abroad subordinate and aspire everything to the great objective of national reunification, pan-national cause, from the stand of prioritizing the nation and attaching importance to it and achieving national unity!

Let us maintain the firm stand and viewpoint to solve all the issues arising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the principle of By Our Nation Itself!

Let all the fellow countrymen more dynamically promote the grand march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to bring earlier a new morning of

4.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결정서(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2013.03.31.]

조선어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주체102(2013)년 3월 31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당, 연합기업소, 중요군수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
3. 조직문제에 대하여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계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수 없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높은 수준의 핵시험에 성공한 그 기백으로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다같이 밀고나가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고 백두산대국의 부강변영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960년대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 정 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에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미제와의 첨예한 핵대결 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여 핵보유의 민족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주의 리념과 파란만장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비껴있는 자위적 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 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전원회의는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우에 올려놓고 론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

자위의 핵방패를 억세계 틀어쥐고나가야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병탄하고 우리 인민을 현대판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의 야망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피로써 쟁취한 모든 사회주의재부들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생존권과 우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를 지켜낼 수 있다.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위대한 정치대국, 군사강국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으로 더욱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생산을 최대로 늘여나가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시켜야 한다.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주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통신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발사 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 할 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해나가며 핵무력의 정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가야 한다.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를 방지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안전보위,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들과 조선인민내무군은 제국주의 반동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비렬한 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며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총대와 범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병진로선 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원회의기본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천만군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반미대결전도, 경제강국건설도 우리의 힘으로 보란 듯이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위임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데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박봉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현영철동지, 김격식동지, 최부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백계룡동지를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 부장으로, 윤우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로 임명하였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는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길, 선군길,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회의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떨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출처: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13-04-0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 [2018.04.20.]

조선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주체107(2018)년 4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주체107(2018)년 4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성원들과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주요공장,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당, 행정간부들 그리고 무력기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3. 조직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 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단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변들이련발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우리 당이 력사적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병진의 험난한 로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 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울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 승리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해 낼 수 있는 빛나는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투쟁속에 경제건설에서도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 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상승궤도에 들어선 것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 되었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것처럼 어렵고 곤란한 속에서도 병진로선의 승리를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장해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시였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 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 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증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 위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내세운 력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 앞에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시었다.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 양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 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경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 기관들에서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충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각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우리 공화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력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충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밝힌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토론자들은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펼쳐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어있다.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립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둘째,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것이다.

셋째,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 해나갈 것이다.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밝혀져 있다.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 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다.

셋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첫째 의정으로 토의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면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 기풍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자는 것을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걸머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강대함과 후손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당적책임감과 애국심을 지니고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 전환을 위하여 분투해나가자고 강조하시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수길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가 하였다.

토론자들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은 우리 당이 과학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 내세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주체의 과학과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떨치는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교육사업을 최대로 중시하시고 혁명발전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부문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앨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보선하였다.

김정각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신영철동지, 손철주동지, 장길성동지, 김성남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김준선동지, 김창선동지, 정영국동지, 리두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리선권동지, 홍정득동지, 석상원동지, 장길룡동지, 박훈동지, 고기철동지, 안명건동지, 고명철동지, 김선옥동지, 홍만호동지, 김철하동지, 김용구동지, 김철룡동지, 김일국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소환, 보선하였다.

고철만동지, 최성근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한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 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 이라고 강조하시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

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적로선과 방침을 현실로 전변시키자면 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출처: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2018-04-21.

Kim Jong Un, chairman of the WPK, guided the plenary meeting.

Attending the meeting were Presidium members, 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and 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of the C. C. , WPK and members of the Central Auditing Commission of the WPK.

Present as observers were members of the WPK Central Committee and party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of ministries, national institutions, provinces, cities and counties, major industrial establishments and institutions and co-operative farms and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rgans.

The plenary meeting dealt with the following agenda items:

1. On tasks of our party to further accelerate socialist construction as required by a fresh high stage of the developing revolution
2. On bringing about a revolutionary turn in science and education
3. Organizational matter

The first agenda was discussed at the meeting.

Kim Jong Un made a report on the first agenda.

He said that the plenary meeting was to be convened to discuss and decide important matters for attaining goals of higher stage of socialist construction as required by the developing revolution and

under the prevailing situation.

Saying that the overall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in favor of the Korean revolution thanks to the DPRK's proactive action and efforts after the declaration of completing the state nuclear force last year, he informed that a fresh climate of détente and peace is being creat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nd dramatic changes are being mad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He said that the miraculous victory of having perfectly accomplished the great historic cause of building the state nuclear force in a short span of less than five years is the great victory of the WPK's line of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a nuclear force and, at the same time, a brilliant victory that could be won only by the heroic Korean people.

He referred to the progress made in the economic construction along with the all-party, all-state and all-people struggle for implementing the above-said line.

He declared with pride that the historic tasks under the strategic line of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two fronts set forth at the March 2013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He said that the victory of the WPK's line was won and thus the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who worked hard with their belt tightened to acquire a powerful treasured sword for defending peace was successfully concluded and the firm guarantee by which our

descendants can enjoy the most dignified and happiest life in the world was provided.

He said that no nuclear test and intermediate-range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test-fire are necessary for the DPRK now, given that the work for mounting nuclear warheads on ballistic rockets was verified as the whole processe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re carried out in a scientific way and in regular sequence, and the development of delivery and strike means was also made scientifically. He added that the mission of the northern nuclear test ground has thus come to an end.

He clarified the WPK's peace-loving stand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building of the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in conformity with the aspiration and desire common to mankind, provided that the DPRK's might was put on the level wanted by it and it became possible to reliably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He said that today when the historic tasks listed by the strategic line of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two fronts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WPK is facing important tasks to accelerate the advance of the revolution with confidence in victory and thus hasten the final victory of the socialist cause.

He clarified that at the present stage in which the DPRK was successfully put on the position of the world-level politico-ideological and military power, it is the strategic line of the WPK to concentrate all efforts of the whole party and country on the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H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launch a general revolutionary offensive and make a dynamic advance in the economic construction under the uplifted militant banner of "Let us further accelerate the advance of our revolution by concentrating all our efforts on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He noted that the immediate goal of the struggle for realizing the new strategic line is to keep production going at full capacity at all industrial establishments and reap a rich harvest in all agricultural fields during the period of carrying out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us make the people's laughter resound far and wide across the country.

He pointed out that the long-term goal is to put the national economy on a Juche, modern, IT and scientific basis and provide all the people with affluent and highly civilized life so that they can live as well as others.

He clarified the tasks for thoroughly carrying out the new strategic line, and ways for doing so including the issue of prioritizing economic work in the overall work of the party and the state, tapping all the human, material and technical potentials of the country for economic development.

He called on all the fields and units to thoroughly rely on science and technology, steadily improve the self-development spirit and effect production surge and leap under the unfurled slogan of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In order to thoroughly implement the new strategic line on channeling all efforts on the economic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enhance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he stressed.

He urged the economic guidance organs including the Cabinet to occupy their position as the master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affairs, meticulously organize the operation and command for making rapid economic progress. He also urged all the fields and units to be unconditionally subordinate to the unified command of the Cabinet for implementing the economic policy of the party.

Speeches were made on the first agenda item at the plenary meeting.

Speakers were Choe Ryong Hae, member of the Presidium of the Political Bureau and vice-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Pak Pong Ju, member of the Presidium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WPK Central Committee and premier of the Cabinet, and Kim Jong Gak, director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of the Korean People's Army.

Resolutions on the first agenda item were adopted with unanimous approval.

The resolution "On Proclaiming Great Victory of the Line of Simultaneous Development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of Nuclear Force" specified the following decisions.

First, we solemnly declare that the sub-critical nuclear test,

I
강령
II
주요정책방향
III
주요기관성명
IV
주요명령
V
기타

underground nuclear test, making nuclear weapon smaller and lighter and the development of the super-large nuclear weapon and delivery mean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in the course of the campaign for implementing the party's line of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two fronts and thus the work for mounting nuclear warheads on ballistic rockets has been reliably realized.

Second, we will discontinue nuclear test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test-fire from April 21, Juche 107 (2018).

The northern nuclear test ground of the DPRK will be dismantled to transparently guarantee the discontinuance of the nuclear test.

Third, the discontinuance of the nuclear test is an important process for the worldwide disarmament, and the DPRK will join the international desire and efforts for the total halt to the nuclear test.

Fourth, the DPRK will never use nuclear weapons nor transfer nuclear weapons or nuclear technology under any circumstances unless there are nuclear threat and nuclear provocation against the DPRK.

Fifth, we will concentrate all efforts on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economy and markedly improving the standard of people's living through the mobilization of al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country.

Sixth, we will create international environment favorable for the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and facilitate close contact and active dialogue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defe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The resolution "On Concentrating All Efforts on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to Meet Requirements of New High Stage of Developing Revolution" clarified the following decisions.

First, we will orientate the overall party and state affairs into the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and concentrate all efforts on it.

Second, the Party and working people's organizations, power organs, law enforcement organs and armed forces organs should enhance their roles in the struggle to concentrate all efforts on the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Third, the Party organiza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t all levels should regularly control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made at the 3rd Plenary Meeting of the 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so as to ensure their thorough implementation.

Fourth,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Cabinet should take leg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measures to carry out the tasks set forth in the resolutions of the plenary meeting of the WPK Central Committee.

The second agenda item was discussed at the meeting.

Kim Jong Un made a report on the second agenda item.

He underlined the need to bring about a revolutionary turn in science and education, adding that the issue of concentrating all efforts on the

economic construction would be unthinkable without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education.

He said that in recent years our Party has made not a few achievements through active measures to boost science and education to suit the requirements of the higher stage of the developing revolution. He also analyzed and reviewed drawback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education and their causes.

He set forth the strategic slogan "Let us make a leap forward by dint of science and guarantee the future by dint of education!" and clearly specified the tasks and ways for putting spurs to building a scientific and technical power and a talent power.

Speeches on the second agenda item were made by Pak Thae Song, member of the Political Bureau and vice-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Kim Su Gil, alternate member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WPK Central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Pyongyang City Committee of the WPK, and Kim Sung Du, chairman of the Education Commission.

The resolution on the second agenda item "On Effecting Revolutionary Turn in Science and Education" was adopted.

The plenary meeting discussed the organizational matter, the third agenda.

There was a by-election of a member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entral Committee.

Kim Jong Gak was by-elected member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 C. , WPK.

There were recall and by-election of 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Sin Yong Chol, Son Chol Ju, Jang Kil Song and Kim Song Nam, who had been alternate member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ere elected members, and Kim Jun Son, Kim Chang Son, Jong Yong Guk and Ri Tu Song were elected member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to fill vacancies.

Ri Son Gwon, Hong Jong Duk, Sok Sang Won, Jang Kil Ryong, Pak Hun, Ko Ki Chol, An Myong Gon, Ko Myong Chol, Kim Son Uk, Hong Man Ho, Kim Chol Ha, Kim Yong Gu, Kim Chol Ryong and Kim Il Guk were elected alternate member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to fill vacancies.

Recall and by-election of members of the Central Auditing Commission of the WPK were held.

Ko Chol Man and Choe Song Gun were by-elected members of the Central Auditing Commission of the WPK.

Kim Jong Un made a historic concluding speech at the plenary meeting.

He said that the declaration of the victory of the line of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a nuclear force and advancement of the new line on focusing all efforts

on the economic construction at the current plenary meeting is a political event of historical significance in accomplishing the socialist cause of Juche.

The main spirit of the 3rd Plenary Meeting of the 7th Party Central Committee is to further accelerate the advance of our revolution under the unfurled banner of self-reliance on the basis of the great victory of the line of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a nuclear force and thus attain ahead of schedule the higher goal of socialist construction set forth at the Seventh Congress of the WPK, he noted.

Stressing that the core and main principle of the new revolutionary line of the Party is self-reliance, he underscored the need to maintain indomitable perseverance in the spirit of self-reliance as ever and open up the avenue for prosperity and bring earlier the rosy future.

Our goal is to activate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and put it on an upward spiral track and thus establish independent and modern socialist economy, knowledge-based economy, in the period of carrying out the five-year strategy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e stated.

He stressed the need to attach importance to science and education and develop them in order to achieve the higher goal of socialist construction by thoroughly carrying out the new revolutionary line of the Party.

In order to realize the revolutionary line and the policy of the Party,

officials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with the strong determination and work hard with high abilities to put their fields and units on the level as required by the Party, he added.

I
고관
직위
장관
부처

II
중
장
부
장
장
부
장
장
부
장

III
중
장
부
장
장
부
장

IV
중
장
부
장
장
부
장

V
기
타

Source: KCNA

6. 북남 노동자 단체 공동성명: 북남 노동자의 단결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18.06.15.]

조선어

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8돛을 맞이하는 이 시각 북과 남의 전체 노동자들은 판문점선언이 열어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뜨거운 심장으로 맞이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6월 민족 분열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 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일대 사변이었다.

력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 번졌으며 우리 북남 노동자들은 6.15의 기치 밑에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힘차게 추동하여왔다.

반통일의 역풍 속에서도 북남 노동자들을 비롯한 온 겨레가 굳건히 지켜오고 실천해온 6.15는 마침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6.15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환희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온 민족을 5. 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북남 노동자 단체들은 두 차례의 력사적인 판문점수뇌 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번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새로운 력사,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와 열의로 충만되어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놓여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진 분렬과 연속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사적 과제가 나서고 있다.

북과 남의 노동자는 고난과 위기의 언덕을 넘으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열어낸 역사적 전환기 앞에서 민족 앞에 주어진 책무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현해나갈 것이다.

이 땅의 항구적 평화와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당당히 앞장서나갈 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가장 선차적과제이다.

73년간 이어진 위기의 반복 속에 외세의 군사적 개입과 간섭은 가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세계최대의 화약고로,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알 수 없는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위기의 반복은 이 땅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는 이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

나아가 전쟁위기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분렬 73년 만에 열린 역사적 전환기에 북과 남의 노동자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민족 앞에 나선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의 전체 노동자가 앞장서서 나아갈 것이다.

오늘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판문점선언의 민족자주원칙으로 계승되었다.

평화와 통일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 어떤 동맹이나 우방도 우리 민족의 리익을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며 1차적인 과제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북, 남, 해외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공존, 공영, 공리의 목표 아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기 가장 큰 애국애족이다.

북과 남의 노동자는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는데 앞장서나갈 것이다.

통일의 주인은 북, 남, 해외 8천만 민족 전체이다.

북남 수뇌 분들의 상봉과 회담, 4. 27선언에 의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판문점선언의 중단 없는 리행이다.

북과 남의 전체 노동자는 판문점선언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견결히 맞서 싸워나가며 선언의 중단 없는 리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분렬 73년 력사의 결산이 시작되었다.

북과 남의 전체 노동자의 뜨거운 심장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간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8년 6월 15일

I

고
조
국
사
가
의
사
상

II

주
공
정
의
사
상
의
실
현

III

연
성
의
주
요
관
계

IV

화
합
의
주
요
문
제

V

기
타

The statement said that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hich all Koreans including the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had firmly defended and implemented, was led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at last and the emotion of June 15 developed into the joy and passion of April 27 and then set the entire nation agog with excitement of May 26.

Expressing full support for the two inter-Korean summits in Panmunjom and the adoption of the April 27 declaration again, the organizations of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are filled with enthusiasm and will to take the lead in making a new history, a new era of peace and reunification, it added.

Noting that all Koreans are now faced with the historic task of the nation to end the history of division and subordination, which has lasted for over 70 years, and realize the independent reunification, the statement said: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discharge in the van the duty facing the nation at the historic turning point that our nation brought by its own efforts, overcoming the hill of ordeal and crisis.

It is the most primary task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to put an end to the history of mistrust and confrontation and establish a durable peace-keeping regime on this land.

A total end should be put to the state of war which stopped on July 27, 1953. Moreover, a peace accord should be concluded to completely

terminate the war crisis and realize lasting peace.

At the historic turning point made in 73 years of division, the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do their best to settle the historic task facing our nation.

All the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take the lead in getting the armistice agreement abrogated and realizing a peace accord.

Today the idea of By Our Nation Itself, clarified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as developed into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arty most responsibl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is just our nation.

The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conduct all their activities strictly in the spirit of By Our Nation Itself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stand in the van of struggle to decisively reject domination and interference of outsiders obstructive to peace and reunification.

They will resolutely struggle against any attempt to impair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do their best for the unceasing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The statement expressed the firm resolve of all the workers in the north and the south to dynamically usher in a new era of peace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Source: KCNA

7.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8.06.15.]

조선어

은 겨레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리정표로 받아 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4.27선언 리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돛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 분렬 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었다.

력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 변졌으며 6.15의 기치 밑에 전진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 민족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6.15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뭇겨 마침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환희와 걱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에 진행된 두 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번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해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번영의 새 시대,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리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것이다.

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역사의 새 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6.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온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 된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리정표를 따라 활력 있게 전진해나가도록 힘 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 문제,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나갈 것이다.

2.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전 민족적 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나갈 것이다.

오랜 세월 분열과 대결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 지고 화해단합과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진 오늘의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통일의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던 6.15통일시대와 올해에 들어와 조선 반도에 펼쳐진 경이적인 특대사변들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뜻을 같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 행사들을 함께 추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장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회합을 활성화하여 우리 민족이 있는 모든 곳에서 판문점선언 리행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도록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선언 리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선언 리행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것이다.

3.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화해나갈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요구이며 북남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력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고 적대관계의 종식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지표가 마련됨으로써 평화실현에서 중대한 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북남 사이에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첨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 있게 펼쳐갈 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가 우러르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판문점선언 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북, 남, 해외 통일운동련대 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인 련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8년 6월 15일

Pyongyang, June 15 (KCNA) -- The north, south and overseas side committees for implementing June 15 Joint Declaration issued a resolution Friday, the 18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ll-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made public the following resolution with the will to take the lead in ushering in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a new history of independent reunification:

1. We will hold fast to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its successor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a milestone for reunification common to the nation.

We will invariably maintain as the great programme for reunification common to the nation until the day of national reunificatio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hich declared a new start of our nation's history and vigorously advanced the June 15 era.

We will firmly adhere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that we decide the destiny of our nation by ourselves, as clarified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reaffirm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We will strive to make the north-south relations dynamically develop under the milestone clarifi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decisively reject any interference and arbitrary practices against the north-south relations, the internal affairs of the nation.

2. We will vigorously wage a nation-wide campa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us positively promote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nation.

We will jointly push forward the work to hold events common to the nation to be participated in by the authorities, parliaments, political parties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on the occasions of the anniversaries of the north-south declarations and other days significant for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rough such course, further fan up the atmosphere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We will encourage the contacts and visits among bodies of different circles and sec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abroad and reenergize diverse meetings for reunification in conformity with their specific characters, thus creating the warm climate of implement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wherever Koreans live.

3. We will further invigorate the activities to defuse the military tensions and remove the danger of war from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jointly strive to build a mechanism for keeping lasting and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ge a vigorous mass movement for preventing all forms of actions that may cause distrust and antagonism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gain and escalate the military tension, contrary to the desire of all the fellow countrymen and the spiri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We will fully display the spirit and will of our fellow countrymen to turn the demilitarized zone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 acute hotspot, into a real peace zone and the West Sea into peaceful waters and usher in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free from worry about war.

Source: KCNA

8. 종전선언채택은 평화보장의 첫 공정이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2018.07.24.]

조선어

최근 남조선에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평화협정운동본부를 비롯한 각 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들, 정세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의 입구이다.》, 《미국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에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당국도 내년 종전선언 채택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이를 여러 정당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며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하나 종전선언 채택을 막고 북남, 조미화해 흐름을 파탄내어 조선반도에 침예한 대결과 전쟁 국면을 조성하려는 발악적 망동이다.

종전선언채택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어오지만 조선반도에서는 아직도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정전이 결코 전쟁의 종결로 될 수 없으며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력사에 류례가 없는 장기간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탄이 장치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력사적과제라고 밝히고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합의사항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종전선언 문제를 미국도 지지하였으며 조미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실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미 쌍방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에게 리로우면 리롭지 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조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견지에서 보나,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견지에서 보아도 종전선언 채택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공정이다.

이는 판문점수뇌회담과 조미수뇌회담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미 결실을 보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 앞에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로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 되어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송사리 떼들이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운명과 전도는 아랑곳없이 저들의 더러운 야욕만을 추구하는 대결적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고 심술을 부리는 보수패거리들에 대한 평화지향세력의 립장은 명백하다.

종전선언을 해야 평화가 시작된다.

Pyongyang, July 24 (KCNA) -- There are growing voices demanding the adoption of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in south Korea.

The Headquarters for Peace Treaty Movement and other civic and public organizations compris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media and analyzers in south Korea call for the adoption of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this year as was agre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saying that the "declaration is an entranc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has to show a responsible attitude for lasting peace-keeping regim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o, clarified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as their goal for the year, which is supported by various political parties.

But it is only the "Liberal Korea Party" and other conservative forces that stand against it, insisting "the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does not mean the advent of peace".

This constitutes the desperate bid to stop the adoption, scuttle the trend for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to create the phase of acute stand-off and war on the peninsula.

As for the issue of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it is the first process for defusing tension and building solid peace-keeping mechanism on the peninsula and a primary step for

building confidenc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almost 65 year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but ceasefire still persists on the peninsula.

Ceasefire can never mean the termination of war and it can not guarantee peace. This is a serious lesson taught by history.

The ceasefire that has lasted unprecedentedly long in history is like a time bomb set, threaten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region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Panmunjom Declaration clarified that it is a historical task which brooks no further delay to terminate the current abnormal ceasefire and build durable peace-keeping mechanism on the peninsula, and stipulated it as one of important commitments to declare the termination of war and convert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treaty.

The U.S., too, supported the issue of terminating war and this has already been agreed upon at the DPRK-U.S. summit talks.

The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in the peninsula can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peac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is will be beneficial both to the DPRK and the U.S. as well a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is the first and foremost process in the light of ending the extreme hostility and

establishing new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also in the light of opening up new future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interests of the two peoples.

This issue should have been settled long before in view of the spirit of the Panmunjom summit talks and the DPRK-U.S. summit talks.

It is deeply regretful that the issue of the 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war that was agreed before the world has not yet seen its solution due to various conditions and excuses.

However, the riff-raffs like the LKP finding it hard to support itself after being abandoned are saying this or that about such an important issue. This is a confrontational act of pursuing one's own dirty ambition, indifferent to the destiny and prospect of the nation.

Clear is the stand of the peace-loving forces towards the conservative group who behaves perversely while asserting that "declaration of the termination of war does not bring peace itself".

Peace can come only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termination of war.

Source: KCNA

9. 종전선언발표가 선차적공정이다(노동신문 개인논평)

[2018.08.09.]

조선어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종전선언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과 대조선 전문가들이 조선반도 정세를 투시하면서 그러한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로씨야 신문 《쵸스까야 쥐즌》은 종전선언 발표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한 동시에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로 된다, 조미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한 웹싸이트는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미국 관리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이것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된 사항들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차가 있는 법이다.

알려진 것처럼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계기로 조미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되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이로 하여 조미쌍방은 아직까지 총부리를 서로 마주하고 불신과 적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바로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미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제는 조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이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종전선언 발표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로 된다,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실현하고 평화협정체결에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관계 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는 홈페이지에 글을 실고 미국전문가들 속에서 조미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분분하다고 하면서 마사츄세츠 공과대학의 한 정치학교수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서 조미사이의 평화체제 구축을 첫 공정으로 규제하였다고 강조한데 대해 전하였다.

종전선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력사가들이 조미대결 과정을 평가하면서 종전선언 발표를 더 이상 미루다가는 그것이 현시대에 력사가 가장 오래된 전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가 끝장나면 신뢰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오래전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발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쌍방이 다 같이 움직여야 실현될 수 있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조미관계는 력사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Pyongyang, August 9 (KCNA) -- The DPRK-U.S. summit meeting and talks in Singapore took place with the noble purpose for ending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which lasted century after century and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Rodong Sinmun says in a commentary Thursday.

Now is the time for the DPRK and the U.S. to make a war-end declaration which is the requirement of the times, the commentary says, and goes on:

To declare the war-end is the first process for ensuring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region and the world. If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U.S. comes to a close with the publication of the war-end declaration, an atmosphere favorable for confidence-building will be provided.

The DPRK government has long proposed declaring the war-end and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ccord as the most reasonable way for defusing tension and ensuring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is has not yet come true. It shows that unilateral efforts cannot solve problems. Both sides should make efforts to settle the problems.

The Singapore DPRK-U.S. joint statement called for making joint efforts to build permanent and durable peace-keeping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U.S. relations should make a big step forward as required by a new phase of the development of history.

Source: Rodong Sinmun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값 13,500원



ISBN 978-89-8479-922-6
ISBN 978-89-8479-920-2 (전4권)